



문제의 의도, 정답 해설과 오답 풀이를 제공하는

## 정답과 해설

# I 대화와 표준 발음

## 1 긍정적이고 협력적인 대화

### ■ 자아 개념과 협력적인 대화

문제로 확인하기

본문 12~17쪽

01. ③ 02. 중요한 타인 03. ⑤ 04. ③ 05. ④ 06. ②  
07. ⑤ 08. ‘나’-전달법 09. ②

- 01 자아 개념은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스스로의 생각과 타인이 생각하는 ‘나’의 모습에 관한 주관적인 견해이다.
- 02 자아 개념 형성에 큰 기여를 하는 사람을 ‘중요한 타인’이라고 한다.
- 03 남학생은 중학생이 되기 전까지는 소심하고 말이 없었다가 중학교 때 만난 친구의 영향으로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즉 중학교 때 만난 친구의 영향으로 남학생의 자아 개념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 04 원만한 대화를 하기 위해 자신의 자아 개념을 돌아보고 의사소통 방식을 점검하여 부정적 측면을 긍정적 측면으로 전환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 05 긍정적 자아 개념을 가진 사람은 상대의 말에 긍정적인 반응을 하는 경우가 많고, 이는 곧 긍정적인 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 06 ‘격려하기’는 상대가 이야기를 지속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방법으로서, 상대의 말에 추임새를 넣거나 상대의 말이 끊긴 경우 차분히 기다리는 것 등이 있다.
- | 오답 풀이 | ① 상대의 말에 추임새를 넣는 것은 ‘격려하기’에 해당한다.  
③ 상대에게 몫입해서 듣는 것은 ‘집중하기’에 해당한다.  
④ ‘반영하기’는 상대가 한 말을 재구성하여 재진술하는 것을 말한다.  
⑤ 상대의 생각을 자신의 말로 풀어서 말하는 것은 ‘반영하기’에 해당한다.
- 07 상대와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대의 생각이나 행동을 평가하고 비판하기보다는 상대를 이해하고 수용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08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대화 방식의 하나로서,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 경험을 상대에게 표현하는 방법을 ‘나’-전달법이라고 한다.

- 09 형은 집이 지저분하다는 이유로 동생에게 폭력적인 말하기를 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동생은 형과 자신을 비교하며 상대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있다.

③ 동생은 형의 감정을 이해하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토로하고 있다.

④ 형은 폭력적인 말하기를 하고 있으며, 동생은 비교하는 말하기를 하고 있으므로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협력적 대화라고 볼 수 없다.

⑤ 형의 말하기는 상대를 평가하고 비난하는 폭력적인 말하기에 해당하고, 동생의 말하기는 비교하는 말하기에 해당하므로 둘 다 비폭력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 소단원 적중 문제

본문 25~26쪽

01. ⑤ 02. ③ 03. ④ 자아 개념과 의사소통 방식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긍정적 자아 개념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04. ② 05. 자신의 감정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상대에게 자신의 욕구를 표현한다. 06. ② 07. ①

- 01 나에 따르면, 자아 개념 형성에 큰 기여를 하는 사람을 ‘중요한 타인’이라고 한다. 성장하며 접하는 다양한 사람이 자아 개념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그중 부모, 형제, 친구처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을 ‘중요한 타인’이라고 일컫는다.

- 02 진수는 어린 시절 친구들과 의사소통 과정에서 부정적인 반응으로 인해 부정적 자아 개념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는 고등학생이 된 진수가 소극적인 의사소통 방식을 갖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② 진수는 어린 시절 친구들에게 받은 부정적 반응으로 인해 부정적 자아 개념을 갖게 되었을 가능성 이 높다.

④, ⑤ 부정적 자아 개념을 가진 사람은 소극적이고 폐쇄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경향이 있다.

**03** ‘의사소통과 자아 개념의 순환 과정’에 따라 자아 개념과 의사소통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긍정적 자아 개념을 가진 경우 긍정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상대와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부정적 측면을 긍정적 측면으로 전환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평가 기준	점수
‘의사소통과 자아 개념의 순환 과정’과 협력적 관계 형성을 연관 지어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5점
관계 형성에 관한 내용은 서술하였지만 ‘의사소통과 자아 개념의 순환 과정’과 연관 짓지 못한 경우	3점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1점

**04** 이 글에 따르면 상대와의 관계에 따라 적절하게 자기표현을 하는 것이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 바람직하다. 자기표현을 많이 할수록 관계가 돈독해지는 것은 아니다.

**05** ④의 ‘상대를 평가하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상대에게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는 비폭력 대화’라는 내용을 통해 비폭력 대화의 방법을 알 수 있다.

평가 기준	점수
④에 나타난 비폭력 대화의 방법을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5점
비폭력 대화의 방법은 서술했으나 ④에 나타난 방법이 아닌 경우	3점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1점

**06** ‘소희’는 “정말? 그랬구나.”라고 하며 상대의 말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표현하고, “무슨 일 있었어?”와 같이 상대가 이야기를 지속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그러나 상대가 한 말을 재구성하여 재진술하고 있지는 않다.

**07** ⑦에서 ‘서우’는 자신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본인 할 말만 하는 ‘나리’의 행동을 질책하며 자신의 서운함을 표현하고 있다.

### 중단원 실전 문제

본문 28~30쪽

01. ③    02. ②    03. ④    04. ①    05. ④  
 06. ③    07. ④    08. ③    09. ①    10. ④  
 타인과 원활하게 의사소통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대화 능력이 필요하다.  
 비난의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2)에 대화 중에 방송 이야기만 주로 하니 네가 내 말을 잘 듣지 않는 것 같아서 서운해. 네가 내 말에 조금 더 귀 기울여 주면 좋겠어. 잠깐 내가 하는 말 좀 들어 줄 수 있을까?

**01** 이 글에서는 자아 개념의 정의, 자아 개념과 의사소통의 순환 과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부정적 자아 개념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④에서 대화는 둘 이상의 참여자가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 정보 등을 주고받으며 서로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의사소통 행위임을 밝히고 있다.

② ④에 따르면 자아 개념과 의사소통은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순환 과정을 이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④에 따르면 자아 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타인으로 부모, 형제, 친구 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④에 따르면 긍정적 자아 개념을 가진 사람이 상대와 협력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02** <보기>에서 남학생의 자아 개념이 중학교 때 만난 친구에 의해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이것은 자아 개념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상대와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 **오답 풀이** | ① <보기>에서 남학생의 경우 중학교 때 만난 친구가 항상 칭찬을 해 주었기 때문에 자아 개념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뀔 수 있었지만, 자아 개념이 언제나 긍정적인 방향으로만 변화하는 것은 아니다.

③ <보기>에 따르면 자아 개념이 성장하며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보기>의 내용과 자아 개념을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연관이 없다.

⑤ <보기>의 내용과 타인의 자아 개념을 평가하는 것의 부정적인 영향은 서로 관련이 없다.

**03** ④에서는 상대와 원활하게 의사소통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대화 능력을 기를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④에서는 자아 개념과 의사소통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이는 곧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에도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타인과 관계를 맺는 데 대화 능력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평가 기준	점수
대화 능력의 필요성을 ④와 ④의 내용과 연관 지어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5점
대화 능력의 필요성을 서술하였으나 ④와 ④의 내용과 연관 짓지 못한 경우	3점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1점

**04** ‘의사소통과 자아 개념의 순환 과정’은 자아 개념과 의사소통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자아 개념으로 인해 형성된 의사소통 방식은 타인과의 관계에 영향

을 미치고, 이것은 다시 자아 개념에 영향을 준다.

| 오답 풀이 | ② 자아 개념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성장하면서 변하기도 한다.

③ 자아 개념과 의사소통 방식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으로, 자아 개념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의사소통 방식을 바꾸는 것이 필수적이란 내용은 이 글에서 찾아볼 수 없다.

④ 관계의 거리에 따라 자아 개념이 다르게 발현된다는 내용은 이 글에서 찾아볼 수 없다.

⑤ 이 글에 따르면 자아 개념과 의사소통 방식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05 <보기>에서 ‘나라’는 친구들의 응원에 힘입어 과거의 부정적 자아 개념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인다. 긍정적 자아 개념을 가진 사람은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나라’가 자신을 과하게 드러내지 않는 긍정적 자아 개념을 가졌다는 말은 옳지 않다.

06 상대와의 관계에 따라 적절하게 자기표현을 해야 한다고 하였으나, 상대의 의사소통 방식에 따라 나의 의사소통 방식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서로에게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화 방식과 태도를 지니고, 상대의 입장에 공감하고 반응하며 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07 <보기>는 상대에게 불쾌감을 주는 대화법에 대한 글이다. 상대의 말에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하는 것은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상대의 말에 동의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무조건 공감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08 <보기>의 Ⓐ는 폭력적인 말하기와 비교하는 말하기의 예이고, Ⓑ는 비폭력 대화의 예이다. Ⓑ에서 형은 자신의 감정을 인지하고 동생에게 자신의 욕구를 솔직하게 표현하는 비폭력적 말하기를 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에서는 동생이 형과 자신을 비교하는 말하기를 하고 있다.

② Ⓐ의 동생은 형의 감정을 이해하기보다는 자신의 불만을 토로하며 형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있다.

④ Ⓑ의 동생은 형의 말을 수용하면서도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솔직하게 표현하는 비폭력 대화 방식을 취하고 있다.

⑤ Ⓐ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폭력적 대화이지만, Ⓑ는 상대와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비폭력적 대화이다.

09 <보기>에서 ‘서우’는 다른 친구의 말을 귀담아듣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하는 ‘나라’에게 화를 내며 서운한 감정

을 상대에 대한 비난의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비폭력 대화의 방식은 ‘관찰한 대로 표현하기 – 느낌 말하기 – 욕구 표현하기 – 부탁하기’의 순서로 표현할 수 있다.

평가 기준	점수
(1)과 (2) 둘 다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5점
(1)과 (2) 중 하나만 서술한 경우	3점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1점

## 2 슬기로운 발음 생활

### 표준 발음과 국어생활

문제로 확인하기

본문 34~42쪽

01. ② 02. (1)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④ 06. ③ 07. ③ 08. (1) 거센소리되기 (2) 거센소리되기 (3)  
‘Hong’ 틸락 (4) 거센소리되기 09. ① 10. ④ 11. 앞, 뒤, 뒤, 앞  
12. ④ 13. ⑦: ‘ㄴ’ 첨가 ⑮: 유음화 14. ②

01 이 글에 따르면 발음은 지역, 사회 계층, 개인의 발음 습관 등에 따라 다르게 실현될 수 있으며(ㄱ), 이 때문에 발음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혼란을 막고 효율적으로 의사소통하기 위해 표준 발음법을 제정하였다(ㄷ).

02 (1) 표준 발음법에서 전통성을 고려한 예로, 단모음 ‘ㅏ’와 ‘ㅓ’의 구별(㉡)이나 모음의 장단에 대한 규정(㉢) 등을 들 수 있다.

(2) 표준 발음법에서 합리성을 고려한 예로, 국어의 발음 규칙에 따라 ‘맛있다’의 원칙 발음을 [마딛따]로 정한 것(㉠)이나 연음 규칙에 따라 ‘닭이’를 [다기]가 아니라 [달기]로 발음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03 [A]에서 남학생은 ‘진로’를 [진노]라고 발음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발음으로 [질:로]라고 발음해야 한다. [진노]라고 발음하는 경우 ‘성을 내며 노여워함. 또는 그런 감정.’의 뜻인 ‘진노’라는 다른 단어로 의미가 잘못 전달될 위험이 있다.

04 ‘낫’, ‘낫’, ‘낫’은 모두 [남]으로 발음하는데 이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관련이 있다.

**05** 자음군 단순화에 의해 받침의 ‘ㄹ’은 [ㄱ]으로 발음되기 때문에 ‘맑다’는 [막따]로 발음된다.

**06** ‘밟다’는 [밥:따]로 발음하므로 앞 자음이 탈락하는 경우(⑦)에 해당하고, ‘핥다’는 [할따]로 발음하므로 뒤 자음이 탈락하는 경우(⑮)에 해당한다.

| 오답 풀이 | ① ‘넋[넉]’과 ‘여덟[여덜]’ 둘 다 ⑭에 해당한다.  
② ‘앉다[안따]’는 ⑯에, ‘젊다[점:따]’는 ⑰에 해당한다.  
④ ‘없다[업:따]’와 ‘넓다[널따]’ 둘 다 ⑭에 해당한다.  
⑤ ‘뚫고[물꼬]’는 ⑭에, ‘늙지[느찌]’는 ⑰에 해당한다.

**07** 음의 동화는 앞 음절의 음운이 뒤 음절의 음운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먹는[멍는]’의 예처럼 뒤 음절의 음운이 앞의 음운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다.

**08** 받침으로 쓰인 ‘ㅎ’이 뒤에 오는 ‘ㄱ, ㄷ, ㅈ’과 결합되거나 받침 ‘ㄱ, ㄷ, ㅂ, ㅈ’이 뒤 음절 첫소리 ‘ㅎ’과 결합되는 경우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난다. ‘ㅎ’ 뒤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나 접사가 결합되는 경우에는 ‘ㅎ’ 탈락이 일어난다.

**09** 비음화는 조음 위치는 그대로 유지되고 조음 방법이 파열음에서 비음으로 바뀌는 음운 변동이다.

**10** 된소리되기에서는 음운 변동 중 교체 현상이, ‘ㄴ’ 첨가에서는 첨가 현상이 일어난다.

**11** ‘권력[궐력]’은 앞 음절의 종성 ‘ㄴ’이 뒤 음절의 초성 ‘ㄹ’의 영향으로, ‘줄넘기[줄럼끼]’는 뒤 음절의 초성 ‘ㄴ’이 앞 음절의 종성 ‘ㄹ’의 영향으로 유음화되었다.

**12** ‘닮고[담:꼬]’는 어간 받침 ‘ㅁ’ 뒤에 어미의 첫소리 ‘ㄱ’이 결합하여 된소리되기가 일어나므로 ⑯의 예에 해당한다. ⑯의 예로는 ‘할 것을[할꺼슬]’, ‘갈 곳[갈꼰]’ 등을 들 수 있다.

**13** ‘휘발유[휘발류]’는 우선 마지막 음절에 ‘ㄴ’ 첨가가 일어난 이후에, 첨가된 ‘ㄴ’이 앞 음절의 ‘ㄹ’의 영향을 받아 [ㄹ]로 발음되는 유음화가 일어난다.

**14** 단어의 첫음절 이외의 ‘의’는 [ㅣ]로 발음하는 것을 허용하므로 ‘협의’는 [혀비/혀비]로 발음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단어의 첫음절 ‘의’는 [니]로 발음한다.  
③, ⑤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는 ‘니’는 [ㅣ]로 발음하므로 ‘희망’은 [희망]으로 발음한다.  
④ ‘의’가 조사인 경우에는 [의]로 발음하는 것을 허용한다.

### 소단원 적중 문제

본문 52~55쪽

01. ③ 02. ④ 03. ④ 04. ⑩ 잘못된 발음으로 말하면 정확한 정보 전달이 어려우며, 타인과 원활한 사회적 관계를 맺기 어려울 수 있다. 05. ④ 06. ‘앎’은 자음군 단순화에 따라 겹받침 ‘ㄹ’의 뒤 자음만 발음되므로 [암]으로 발음되고, ‘앎이’는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와 결합하여 연음되므로 [알:미]로 발음된다. 07. ⑤ 08. ⑤ 09. ⑤ 10. ③ 11. ③ 12. ‘솔잎’의 경우 먼저 ‘ㄴ’ 첨가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 [솔닙]이 되고, ‘ㄴ’이 앞의 ‘ㄹ’의 영향을 받아 [리]로 유음화되어 [솔립]으로 발음된다. 13. ④ 14. ②

**01** 발음의 차이로 인해 혼란을 막고 효율적으로 의사 소통하기 위해 표준 발음법에 따라 발음해야 한다.

**02**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ㅋ’와 ‘ㅌ’의 발음을 구분하지 못하지만, 발음상의 관습인 국어의 전통성을 감안하여 이를 표준 발음법에 포함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표준어의 실제 발음’은 현대 서울말의 현실 발음과 관련된다.  
② 장단음의 구별은 국어의 전통성을 고려한 것이다.  
③ 연음하여 발음하는 것은 국어의 합리성을 고려한 것이다.  
⑤ 표준 발음법에서는 실제 발음을 기반으로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을 모두 감안하여 표준 발음을 정하도록 하였다.

**03** ‘거센소리되기’ 규정은 두 자음이 합쳐져 ‘두 자음 중 하나의 음운’이 아니라 ‘제3의 음운’으로 축약되는 것이다.

**04** <보기>의 남학생과 같이 잘못된 발음으로 말할 경우, 정확한 정보 전달이 어려워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타인과 관계를 맺고 발전시켜 나가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

평가 기준	점수
④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5점
문제점은 서술했으나 ④의 내용과 관련짓지 못한 경우	3점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1점

**05** 음절의 끝소리에서 발음되는 자음은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7개이다.

| 오답 풀이 | ① ‘부엌’의 종성 ‘ㅋ’은 [ㄱ]으로 교체되어 [부억]으로 발음된다.  
② ‘낫’, ‘낫’, ‘낫’에서 각각의 종성 ‘ㅅ, ㅈ, ㅊ’은 모두 [ㄷ]으로 교체되어 발음된다.  
③ ‘ㅍ’은 첫음절에 위치할 때 [ㅍ]으로 발음되지만, 음절 끝에 올 때는 [ㅂ]으로 교체되어 발음된다.  
⑤ ‘ㄴ, ㄹ, ㅁ, ㅇ’으로 끝나는 단어의 끝소리는 교체 없이 그대로 발음된다.

**06** 겹받침의 경우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므로 자음군 중 둘 중 하나만 남고 나머지 하나는 탈락한다. 그러나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엣것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따라서 ‘앎’에는 자음군 단순화가, ‘앎이’에는 연음이 적용되어 각각 [암:], [알:미]로 발음된다.

평가 기준	점수
두 단어에서 일어난 발음 규칙을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5점
두 단어의 발음 규칙 중 하나만 제대로 서술한 경우	2점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1점

**07** ‘많이’는 받침 ‘ㅎ(ㆁ)’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되어 ‘ㅎ’이 탈락하였고, 그 이후 남은 ‘ㄴ’이 연음되어 [마나]로 발음된다.

- | **오답 풀이** | ① ‘놓고’, ‘맏형’에서는 축약, ‘낳은’, ‘많아’에서는 탈락이 일어났다.  
 ② ‘놓고[노코]’는 받침의 ‘ㅎ’과 뒤 음절의 ‘ㄱ’이 축약하였다.  
 ③ ‘맏형[마령]’은 뒤 음절의 ‘ㅎ’과 앞 음절 종성의 ‘ㄷ’이 축약하였다.  
 ④ 뒤 음절의 ‘ㅇ’은 음가가 없기 때문에 ‘낳은’의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된 경우이다.

**08** 제13항에 따라 ‘빛을’, ‘곳에’는 [비출], [고세]로 발음하고, 제14항에 따라 ‘훑을’, ‘밟아’는 [흘글], [발바]로 발음한다.

**09** 된소리되기는 음절의 첫소리에 오는 예사소리가 교체되는 음운 변동 현상이고, ‘ㄴ’ 첨가도 음절 첫소리에 자음 ‘ㄴ’이 첨가되는 음운 변동 현상이다.

- | **오답 풀이** | ① 된소리되기는 ‘ㄱ, ㄷ, ㅂ, ㅅ, ㅈ’처럼 같은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 내에서 된소리를 갖는 예사소리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음운 변동이다.  
 ② ‘책 만들다[챙만들다]’와 같이 두 단어를 이어서 한 마디로 발음하는 경우에도 비음화가 일어난다.  
 ③ ‘ㄴ’과 ‘ㄹ’이 인접하는 경우에는 ‘신라[실라]’처럼 유음화가 일어날 수도 있고, ‘의견란[의:견난]’에서처럼 ‘ㄹ’이 [ㄴ]으로 발음될 수도 있다.  
 ④ 구개음화는 조음 위치가, 비음화와 유음화는 조음 방법이 동화되는 음운 변동이다.

**10** ‘막론[망논]’은 받침 ‘ㄱ’ 뒤에서 ‘ㄹ’이 [ㄴ]으로 발음되고, 그 [ㄴ] 때문에 ‘ㄱ’이 다시 [ㅇ]으로 발음된다. 따라서 비음화로 인한 교체가 2번 일어났다.

- | **오답 풀이** | ① ‘권력[궐력]’에서는 유음화로 인한 교체가 1번 일어났다.

② ‘먹는[멍는]’에서는 비음화로 인한 교체가 1번 일어났다.

④ ‘대통령[대:통녕]’에서는 비음화로 인한 교체가 1번 일어났다.

⑤ ‘굳히다[구치다]’에서는 구개음화로 인한 교체가 1번 일어났다.

**11** ‘있던’은 우선 종성의 ‘ㅆ’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 [ㄷ]으로 교체된 이후, 이 [ㄷ] 뒤에서 뒤 음절의 ‘ㄷ’이 된소리되기를 겪는다. ‘ㅆ’은 종성에서 발음될 수 없다.

| **오답 풀이** | ① ‘국밥’은 종성의 ‘ㄱ’에 의해 뒤 음절의 ‘ㅂ’이 된소리되기를 겪는다.

② ‘옆집’은 받침 ‘ㅍ’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ㄷ]으로 발음되고, 이것의 영향으로 뒤에 연결되는 ‘ㅈ’이 된소리되기를 겪는다.

④ ‘할 것을’에서는 관형사형 어미 ‘-ㄹ’ 뒤에서 ‘ㄱ’이 된소리되기를 겪는다.

⑤ ‘넘지’는 어간 받침 ‘ㅁ’ 뒤에서 어미의 첫소리 ‘ㅈ’이 된소리되기를 겪는다.

**12** ‘솔잎’은 ‘솔’이 자음으로 끝나고 뒤의 첫음절이 ‘이’인 경우 이므로 ‘ㄴ’ 음이 첨가된다. ‘잎’의 받침 ‘ㅍ’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ㅂ]으로 발음한다. 그 후, 첨가된 ‘ㄴ’이 앞의 받침 ‘ㄹ’의 영향을 받아 [ㄹ]로 교체된다.

평가 기준	점수
음운 변동의 과정 3가지를 모두 서술한 경우	5점
음운 변동의 과정 중 일부만 서술한 경우	2점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1점

**13** ‘불놀이[불로리]’는 둘째 음절의 ‘ㄴ’이 앞 음절의 ‘ㄹ’의 조음 방법에 동화되어 [ㄹ]로 유음화되었으므로 제20항(◎)과 관련이 있다.

| **오답 풀이** | ①, ⑤ ‘의견란[의:견난]’과 ‘입원료[이원뇨]’는 유음화와 관련된 제20항(◎)의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② ‘줄넘기[줄럼끼]’는 유음화가 일어났으므로 제19항(◐)이 아니라 제20항(◎)의 예에 해당한다.

③ ‘맨입[맨닙]’은 ‘ㄴ’ 첨가가 일어났으므로 제20항(◎)이 아니라 제29항(◑)의 예에 해당한다.

**14** ⑧의 ‘강릉[강능]’과 ⑨의 ‘담력[담:녁]’은 비음화의 예이고, ⑩의 ‘천리[철리]’와 ⑪의 ‘난로[날:로]’는 유음화의 예이다. 또한 ⑫의 ‘맨입[맨닙]’, ⑬의 ‘색연필[생년필]’, ⑭의 ‘한여름[한녀름]’은 ‘ㄴ’ 첨가의 예이고, ⑮의 ‘국밥[국밥]’과 ⑯의 ‘몰상식[몰상식]’은 된소리되기의 예이다.

01. ③ 02. ④ 03. ④ 표준 발음을 익혀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어문 규범에 맞는 국어생활을 해야 한다. 04. ④  
 05. ③ 06. ④ 07. 받침 'ㄴ'은 자음군 단순화에 따라 [ㄱ]으로 발 음하므로 각각 [국찌칸], [막떼니]로 발음해야 한다. 08. ①  
 09. ⑤ 10. ① [울여름], 'ㄴ' 첨가가 일어난 후 유음화가 일어났다. (2) [들릴], 'ㄴ' 첨가가 일어난 후 유음화가 일어났다. 11. ③ 12. ③

- 01 이 글에는 표준 발음법이 음운 변동 현상과 관련이 있다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만, 음운 변동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서는 밝히고 있지 않다.
- 02 [B]의 선배 아나운서는 신입 아나운서의 평소 언어 습관과는 다른, 'ㅐ'와 'ㅔ'를 구분하는 발음상의 관습을 중시하고 있다.
- 03 우리는 의사소통을 통해 정보를 주고받고 타인과 관계를 맺으므로, 표준 발음에 따라 정확하게 발음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또한 표준 발음 외에도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등과 같은 어문 규범을 이해하고 규범에 맞는 국어생활을 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평가 기준	점수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표준 발음과 그 외 어문 규범에 대한 내용을 모두 관련지어 서술한 경우	5점
표준 발음에 대한 내용만 서술하고 어문 규범에 대해서는 서술하지 않은 경우	3점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1점

- 04 '읊다[읍따]'에서는 자음군 단순화로 인한 탈락과 된소리되 기로 인한 교체가 일어났다.  
**| 오답 풀이 |** ① '닳아[다라]'에서는 'ㅎ'이 탈락하는 음운 변동 이 일어났다.  
 ② '닫는[닫는]'에서는 'ㄷ'이 [ㄴ]으로 바뀌는 교체가 일어났다.  
 ③ '밝히다[발키다]'에서는 'ㄱ'과 'ㅎ'이 축약되어 [ㅋ]으로 발음되었다.  
 ⑤ '넓둥글다[넙뚱글다]'에서는 자음군 'ㄹ' 중 'ㄹ'이 탈락하여 [ㅂ]으로 발음되고, 'ㄷ'이 된소리 [ㅌ]으로 바뀌는 교체가 일어났다.
- 05 '밟다[밥:따]'의 경우 자음군 단순화와 된소리되기로 인해 탈 락과 교체가 일어나 음운의 개수는 1개 줄었다.  
**| 오답 풀이 |** ① '몫[목]'에서는 탈락이 한 번 일어났고 음운의 개수는 1개 줄었다.  
 ② '잡고[잡꼬]'에서는 교체가 한 번 일어났고 음운의 개수는

이전과 동일하다.

- ④ '쌓이다[싸이다]'에서는 탈락이 한 번 일어났고 음운의 개 수는 1개 줄었다.  
 ⑤ '부딪히다[부디치다]'에서는 축약이 한 번 일어났고 음운 이 1개 줄었다.

- 06 'ㄹ'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는 [ㄱ]으로 발음하므로 '맑다'의 경우 [막따]로 발음하고, 'ㄱ' 앞에서는 [ㄹ]로 발음하므로 '맑고'의 경우 [말꼬]로 발음한다.

- 07 '굵직한'의 경우 받침 'ㄺ'은 [ㄱ]으로 발음하고, 받침 'ㄱ' 뒤에 연결되는 'ㅈ'은 된소리로 발음하며, 받침 'ㄱ'과 뒤 음절 첫소리 'ㅎ'이 결합하여 [ㅋ]으로 발음되므로 [국찌칸]으로 발음해야 한다. '맑더니'의 경우 받침 'ㄺ'은 [ㄱ]으로 발음하고, 받침 'ㄱ' 뒤에 연결되는 'ㄷ'은 된소리로 발음하므로 [막 떠니]로 발음해야 한다.

평가 기준	점수
잘못된 이유를 두 단어 모두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6점
잘못된 이유를 한 단어만 제대로 서술한 경우	3점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1점

- 08 '웃다'는 먼저 음절의 끝소리 규칙(⑧)에 따라 받침 'ㅅ'이 [ㄷ]으로 발음되고, 그 후 종성 [ㄷ]의 영향으로 된소리되기 (⑨)가 일어나 [운:따]로 발음된다.

- | 오답 풀이 |** ② '밟지'는 종성 'ㅂ'의 영향으로 된소리되기 (⑨)가 일어난 후 자음군 단순화(⑩)가 일어나 [밥찌]로 발음 된다.

- ③ '핥다'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⑧)에 따라 'ㅌ'이 [ㄷ]으로 발음되고, 종성 [ㄷ]의 영향으로 된소리되기 (⑨)가 일어난 후, 자음군 단순화(⑩)가 일어나 [핥따]로 발음된다.

- ④ '많고'는 'ㅎ'과 'ㄱ'이 결합하여 거센소리되기(⑪)가 일어나 [만:코]로 발음된다.

- ⑤ '깎다'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⑧)에 따라 'ქ'이 [ㄱ]으로 발음되고, 종성 [ㄱ]의 영향으로 된소리되기 (⑨)가 일어나 [깎따]로 발음된다.

- 09 '신라'는 'ㄴ'(⑦)이 둘째 음절의 초성 'ㄹ'(⑨)의 조음 방식에 동화되어 [ㄹ](⑩)이 되는 유음화 현상이고, '피붙이'는 'ㅌ'(⑦)이 둘째 음절의 중성 'ㅣ'(⑩)와 결합하여 [ㅊ](⑩)이 되는 구개음화 현상이다.

- 10 '울여름'과 '들일'은 둘 다 'ㄴ' 첨가가 일어난 후, 그 'ㄴ'이 'ㄹ'의 영향을 받아 유음화된다.

평가 기준	점수
(1)과 (2)의 표준 발음과 음운 변동의 과정을 모두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6점
(1)과 (2) 중 하나만 제대로 서술한 경우	3점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1점

11 ‘붙는[분는]’은 앞 음절 종성의 ‘ㅌ’이 ‘ㄷ’으로 교체되고, 그 ‘ㄷ’이 뒤 음절 초성인 ‘ㄴ’의 조음 방식에 동화되어 [ㄴ]으로 발음된다.

12 ‘꽃잎’은 먼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꼰입]이 되고, 이후 제29항에 따라 ‘ㄴ’이 첨가되어 [꼰닙]. 그리고 첨가된 ‘ㄴ’에 의해 앞말의 빙침이 비음화되어 [꼰닙]으로 발음된다.

#### 대단원 시험 예상 문제

본문 64~67쪽

01. ④    02. ④    03. ④    04. (1) 예 오빠는 동생을 평가하고 질책하는 말하기 방식을 사용하여 동생의 감정을 상하게 만들었다. (2) 예 동생: 오빠, 이 문제 좀 풀어 줄 수 있어? / 오빠: 그래. 어느 부분을 모르겠어? / 동생: 저번 학기에 배운 내용인데, 기억이 잘 안나. / 오빠: 그랬구나.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곧 잘 이해하게 될 거야. / 동생: 고마워, 오빠.  
 05. 예 대화를 통해 타인과 원만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정확하게 발음하여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고 상호 간에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06. ④    07. ⑤    08. ‘꺾다’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된소리되기로 인한 교체가 두 번 적용되어 [꺽따]로 발음된다.    09. ②    10. ⑤    11. ②    12. ③    13. ③    14. ①  
 15. ②

01 타인과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상대와의 관계에 따라 적절하게 자기표현을 해야 한다.

| 오답 풀이 | ① 자아 개념과 의사소통 방식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② 자아 개념은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스스로의 생각과 타인이 생각하는 ‘나’의 모습에 관한 주관적인 견해를 의미한다. 자아 개념이 타인의 견해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③ 상대를 평가하고 비판하기보다는 상대를 이해하고 수용하려고 노력할 때 원만한 관계를 이룰 수 있다. 상대의 비난을 무조건 이해하고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⑤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의견을 중시해야 하는 것은 물론, 자신의 감정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상

대에게 자신의 욕구를 적절히 표현하는 것도 필요하다. 타인의 의견만을 중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02 ‘학생 2’는 발표를 잘하지 못한다는 부정적 자아 개념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자아 개념이 ‘친구’와의 대화에 영향을 주어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태도로 의사소통하고 있다.

03 <보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나라’는 ‘서우’의 비난을 듣고 놀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나라’가 ‘서우’를 비난하는 말하기를 한 것은 아니다.

04 <보기>에서 오빠는 동생을 질책하고 비난함으로써 동생에게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갈등이 생겨났다. 원만한 관계를 위해서는 상대를 평가하기보다는 존중하는 태도의 말하기 방식이 필요하다.

평가 기준	점수
(1)과 (2)를 모두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5점
(1)과 (2) 중 하나만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2점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1점

05 ①에 따르면 대화는 서로 생각이나 느낌, 정보 등을 주고받으며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의사소통 행위이다. 부정확한 발음으로 대화에 임할 경우 대화 상대자 간에 불필요한 오해와 혼란이 발생하여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

평가 기준	점수
표준 발음의 중요성을 ⑦과 연관 지어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5점
표준 발음의 중요성을 서술했으나 ⑦과 적절하게 연관 짓지 못한 경우	3점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1점

06 장단음을 구분하여 발음하는 것은 국어의 전통성을 따르는 것에 해당한다.

07 ‘닦달’을 [닦딸]로 발음할 때 ‘긱’이 ‘긱’으로 교체되는 것은 ⑦의 예시이고, ‘없다’를 [업:따]로 발음할 때 ‘띠’이 ‘띠’이 되는 것은 탈락 현상으로 ⑦의 예시이다.

| 오답 풀이 | ① ‘긱’이 ‘긱’으로 교체되는 것과 ‘긱’이 ‘긱’으로 교체되는 것 모두 ⑦의 예시이다.

② ‘긱’이 ‘긱’으로 교체되는 것은 ⑦의 예시이지만, ‘몫이’가 [목씨]로 발음되는 것은 연음 및 된소리되기 현상으로 겹받침 중 하나가 탈락하는 ⑦의 예시가 아니다.

- ③ ‘ㅌ’이 ‘ㄷ’으로 교체되는 것은 ⑦의 예시이지만, ‘넓이’가 [널비]로 발음되는 것은 연음 현상으로 ①의 예시가 아니다.
- ④ ‘낳고’가 [나:코]로 발음되는 것은 축약 현상으로 ⑦의 예시가 아니다. 겹받침 ‘ㄹ’이 ‘ㅁ’이 되는 것은 ⑤의 예시이다.

- 08** ‘꺾다’는 받침 ‘ㄱ’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ㄱ]으로 교체되어 발음되고, ‘ㄱ’ 뒤에 연결되는 ‘ㄷ’이 된소리 [ㅍ]으로 교체되어 [꺽따]로 발음된다.

평가 기준	점수
표준 발음을 정확히 쓰고 적용되는 발음의 규칙과 음운 변동 현상 두 가지를 모두 서술한 경우	5점
표준 발음을 정확히 쓰고 적용되는 발음의 규칙과 음운 변동 현상 중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2점
표준 발음을 정확히 쓰지 못했거나 적용되는 발음의 규칙과 음운 변동 현상을 하나도 쓰지 못한 경우	0점

- 09** ②는 거센소리되기와 ‘ㅎ’ 탈락에 대한 내용이다. ‘넓히다[널피다]’는 거센소리기가 적용된 예이고 ‘쌓아[싸아]’는 ‘ㅎ’ 탈락이 적용된 예이다.

| **오답 풀이** | ‘까맣지’의 경우 ‘ㅎ’과 ‘ㅈ’이 축약되어 [까:마치]로 발음되며, ‘많던’은 ‘ㅎ’과 ‘ㄷ’이 축약되어 [만:턴]으로 발음된다.

- 10** [B]의 ‘맑더니’의 경우 겹받침 ‘탸’이 [ㄱ]으로 발음되므로 뒤 자음을 선택하여 [막띠니]로 발음하는 것이 적절하다.

| **오답 풀이** | ①, ② [A]의 감기는 [감:기]로, ‘값이’는 [갑씨]로 발음해야 한다.  
③, ④ [B]의 ‘굵직한’은 [국찌칸]으로 발음해야 한다.

- 11** <보기>에서는 A가 B에게 ‘닭’을 선물하면서 ‘[닭기]예요’라고 발음해야 하는 것을 ‘[다기]예요’라고 잘못 발음하여 의사 소통에 오해가 생겼다. 이를 통해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정확하게 발음해야 상호 간의 오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12** ②를 통해 정확한 표준 발음으로 의사소통할 때 원활한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황에 따라 발음을 다르게 하는 태도는 적절하지 않다.

- 13** ⑤의 ‘협력’은 받침 ‘ㅂ’의 영향을 받아 ‘ㄹ’이 ‘ㄴ’으로 교체된 후, 이 ‘ㄴ’의 영향을 받아 받침 ‘ㅂ’이 다시 ‘ㅁ’으로 교체된다. ‘독립’ 역시 받침 ‘ㄱ’의 영향을 받아 ‘ㄹ’이 ‘ㄴ’으로 교체된 후, 이 ‘ㄴ’의 영향을 받아 받침 ‘ㄱ’이 다시 ‘ㅇ’으로 교체된다.

| **오답 풀이** | ① ⑦의 ‘숯이’가 [수치]로 발음되는 것은 음운 변동이 아닌 연음 현상이다.

② ‘쌓지’는 ‘ㅎ’과 ‘ㅈ’이 축약되어 [싸치]로 발음되는 것으로 구개음화의 예시가 아니다.

④ ⑨의 ‘잡는’에서는 ‘ㅂ’이 ‘ㅁ’으로 교체되는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⑤ ⑩의 ‘곤란’에서는 받침의 ‘ㄴ’이 뒤에 오는 유음 ‘ㄹ’의 영향을 받아 유음 ‘ㄹ’로 교체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 14** ②는 비음화에 대한 설명인데, ‘앓는’이 [알른]으로 발음되는 것은 자음군 단순화 및 유음화에 의한 것이다.

| **오답 풀이** | ② ‘닦는[당는]’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 받침 ‘ㄱ’이 [ㄱ]으로 발음되고, ‘ㄱ’이 뒤에 오는 비음 ‘ㄴ’의 영향으로 [ㅇ]으로 비음화된 예이다.

③ ‘법만[범만]’ 받침 ‘ㅂ’이 뒤에 오는 비음 ‘ㅁ’의 영향으로 [ㅁ]으로 비음화된 예이다.

④ ‘읊는[음는]’은 겹받침 중 ‘ㅍ’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 ‘ㅂ’이 되고, ‘ㅂ’이 뒤에 오는 비음 ‘ㄴ’의 영향으로 [ㅁ]으로 비음화된 후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난 예이다.

⑤ ‘집 만들다[짐만들다]’는 받침 ‘ㅂ’이 뒤에 오는 비음 ‘ㅁ’의 영향으로 [ㅁ]으로 비음화된 예이다.

- 15** ①에서는 의사소통과 자아 개념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②에서는 정확한 발음이 의사소통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의사소통은 자아 개념 형성에 영향을 줄 만큼 중요하며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발음으로 의사소통해야 함을 알 수 있다.



# 효과적인 언어 표현

## 1 단어와 문장의 활용

### (1) 단어의 짜임과 의미 관계

문제로 확인하기

본문 74~83쪽

01. ②    02. ②    03. ① 민서, 먹-, 수박, 매우, 달- (2) 가, -은, 이, -았-, -다    04. ④    05. ①    06. ④    07. 주먹, -질, 높-, -이, 명사    08. ①    09. ⑧: 상하 관계 ⑧: 반의 관계    10. ①  
11. ③    12. ②    13. ②    14. (1) 정도 반의어 (2) 상보 반의어  
15. ⑤

01 자립하여 쓸 수 있는 말과 그 말 뒤에 붙어서 쓰이는 말로 나눈 것을 단어라고 하였다. 따라서 조사는 자립하여 쓸 수 없지만 단어에 해당한다.

02 ‘꽃이’에서 ‘이’는 조사이다. 조사는 형식 형태소이자 의존 형태소이다.

03 ‘민서’, ‘수박’은 명사로서 실질 형태소이고, ‘매우’는 부사로서 실질 형태소이며, 어간 ‘먹-’, ‘달-’도 실질 형태소이다. ‘가’, ‘이’는 조사로서 형식 형태소이고, ‘-은’, ‘-았-’, ‘-다’는 어미로서 형식 형태소이다.

04 접두사는 어근 앞에 붙어 어근의 의미를 제한하기는 하나, 품사를 변화시키지는 못한다.

05 ‘앞서다’는 어근 ‘앞’과 어근 ‘서-’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합성어이다. 나머지는 모두 파생어에 해당한다.

| 오답 풀이 | ② ‘넓다’에 접두사 ‘드-’가 결합한 말이다.  
③ ‘듣다’에 접두사 ‘엿-’이 결합한 말이다.  
④ ‘파랗다’에 접두사 ‘새-’가 결합한 말이다.  
⑤ ‘나가다’에 접두사 ‘엇-’이 결합한 말이다.

06 ‘미닫이’는 어근 ‘밀-’과 어근 ‘닫-’, 그리고 접사 ‘-이’가 결합한 말이다. ‘높낮이’는 어근 ‘높-’과 어근 ‘낮-’, 그리고 접사 ‘-이’가 결합한 말이다.

| 오답 풀이 | ① ‘하늘’은 단일어이고, ‘돌다리’는 어근 ‘돌’과 어근 ‘다리’가 결합한 합성어이다.  
② ‘밤나무’는 어근 ‘밤’과 어근 ‘나무’가 결합한 합성어이고, ‘늦더위’는 접사 ‘늦-’과 어근 ‘더위’가 결합한 파생어이다.  
③ ‘가리개’는 어근 ‘가리-’와 접사 ‘-개’가 결합한 파생어이

고, ‘뛰놀다’는 어근 ‘뛰-’와 어근 ‘놀-’이 결합한 합성어이다.

⑤ ‘풋사과’는 접사 ‘풋-’과 어근 ‘사과’가 결합한 파생어이고, ‘고집쟁이’는 어근 ‘고집’과 접사 ‘-쟁이’가 결합한 파생어이다.

07 ‘주먹질’은 명사 어근 ‘주먹’에 접미사 ‘-질’이 붙은 것이며, ‘높이’는 형용사 어근 ‘높-’에 접사 ‘-이’가 붙은 것으로 품사는 명사이다.

08 ⑦과 ①은 동음이의 관계에 있는 말이다. 동음이의 관계란 소리는 같지만 서로 다른 뜻을 지닌 관계이다.

09 ‘꽃’은 ‘장미’의 상위어이고 ‘장미’는 ‘꽃’의 하위어라는 점에서 ‘꽃’과 ‘장미’는 상하 관계를 이룬다. ‘남자’와 ‘여자’는 성별이라는 하나의 의미 요소가 반대라는 점에서 반의 관계를 이룬다.

10 ‘손을 비비다.’에서 ‘손’은 ‘사람의 팔목 끝에 달린 부분’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중심적 의미를 갖는다.

| 오답 풀이 | ② ‘일을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③ ‘손끝의 다섯 개로 갈라진 부분, 또는 그것 하나하나’를 의미한다.  
④ ‘어떤 일을 하는 데 드는 사람의 힘이나 노력, 기술’을 의미한다.  
⑤ ‘어떤 사람의 영향력이나 권한이 미치는 범위’를 의미한다.

11 동음이의어와 다의어 모두 같은 단어가 맥락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로 쓰인다는 특징을 갖는다.

12 [A]의 ⑦에서는 ‘넘다’를 ‘넘치다’로 대체할 수 있으나, ⑪에서는 ‘넘다’를 ‘넘치다’로 대체할 수 없으며 ⑫에서는 ‘넘치다’를 ‘넘다’로 대체할 수 없다. ‘넘다’와 ‘넘치다’가 유의 관계에 있음을 감안하면, 유의 관계에 있는 말이 어떤 문맥에서나 서로 대체 가능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13 ‘참 – 거짓’과 ‘죽다 – 살다’ 모두 상호 배타적 대립 관계를 이루는 상보 반의어에 해당한다.

14 (1) ‘넓다 – 좁다’는 동시 부정(‘넓지도 좁지도 않다’)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정도 반의어에 해당한다.  
(2) ‘삶 – 죽음’은 동시 부정(‘삶도 아니고 죽음도 아닌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상보 반의어에 해당한다.

15 ‘동작’은 몸이나 손발 따위를 움직이는 것을 의미하고 ‘작동’

은 기계가 작용을 받아 움직이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⑦~⑩에는 각각 ‘작동’, ‘작동’, ‘오작동’이 문맥상 적절함을 알 수 있다.

### 소단원 적중 문제

본문 91~93쪽

01. ①    02. ⑤    03. ④    04. ④    05. ③    06. (1) ‘검붉다’는 용언의 어간 ‘검–’과 용언의 어간 ‘붉–’이 연결 어미 없이 바로 결합하였으므로 비통사적 합성어에 해당한다. (2) ‘척척박사’는 부사 ‘척척’과 명사 ‘박사’가 결합하였으므로 비통사적 합성어에 해당한다.    07. ⑤  
08. ②    09. ⑦과 ⑧은 반의 관계에 해당하고, ⑨과 ⑩은 유의 관계에 해당한다.    10. ②    11. ④

- 01 어절은 띄어쓰기 단위에 해당하고 단어는 어절을 자립하여 쓸 수 있는 말과 그 말 뒤에 붙어서 쓰이는 말로 나눈 것이다. 단어를 의미를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로 나눈 것은 형태소이다.
- 02 형태소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로 나눈 것이므로, ‘철수’, ‘와’, ‘영희’, ‘가’, ‘책’, ‘을’, ‘읽–’, ‘–었–’, ‘–다’로 형태소 분석을 할 수 있다.
- 03 ‘율보’의 ‘율–’은 동사 ‘율다’의 어간에 해당하므로, ‘율보’에서 접미사 ‘–보’는 동사를 명사로 만드는 기능을 한다.
- 04 ‘있다’의 경우 ‘있–’은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실질 형태소이고, ‘–다’는 문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형식 형태소이다. 따라서 ‘있–’과 ‘–다’로 형태소를 나누는 것이 적절하다.
- 05 ‘웃기다’에서 ‘–기–’는 사동 접사이다. 이는 문장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므로 지배 접사에 해당한다.
- 06 (1) ‘검붉다’는 ‘검고 붉다’와 같이 중간에 어미의 개입 없이 어간 ‘검–’과 ‘붉–’이 연결되었다는 점에서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2) ‘척척박사’는 부사 ‘척척’이 명사 ‘박사’를 꾸민다는 점에서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 07 ⑦은 어근 ‘살구’와 어근 ‘나무’가 결합한 합성어이고, ⑧은

하나의 어근으로 된 단일어이며, ⑨은 접사 ‘개–’에 어근 ‘살구’가 결합된 파생어이다.

- 08 한 단어가 관련성이 있는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을 때, 이를 다의어라고 한다. 서로 소리는 같지만 뜻이 다른 단어는 동음이의어이다.

- 09 ‘불합격’과 ‘합격’은 의미상으로 대립 관계를 이루며 ‘합격’과 ‘통과’는 의미상으로 서로 유사하다.

평가 기준	점수
의미 관계에 대해 둘 다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4점
의미 관계 중 한 가지만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2점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1점

- 10 유의 관계에 있는 말이라고 해서 문맥에 상관없이 서로 바꾸어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동작’은 몸이나 손발 따위를 움직이는 것을 의미하고 ‘작동’은 기계가 작용을 받아 움직이는 것을 의미하므로 미세한 의미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며, 문맥에 따라 서로 대체할 수 없는 경우도 존재한다.

- 11 ‘그 가게는 손이 많다.’에서 ‘손’은 ‘여관이나 음식점 따위의 영업하는 장소에 찾아온 사람’을 의미하므로 ‘손’ 「2」에 해당하는 의미를 갖는다. 이는 ‘손」의 주변적 의미에 해당한다.

| 오답 풀이 | ① ‘손」과 ‘손」는 서로 다른 표제어에 해당하며, 소리는 같지만 뜻이 서로 다르다.

② ‘손을 비비다.’에서 ‘손」은 ‘사람의 팔목 끝에 달린 부분」을 의미한다. 이는 ‘손」의 중심적 의미에 해당한다.

③ ‘손이 부족하다.’에서 ‘손」은 ‘일을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손」의 주변적 의미에 해당한다.

⑤ 하나의 표제어 안에서 「2」와 「4」에 해당하는 의미를 지닌 단어들은 다의 관계에 있다.

### (2) 품사와 문장 구조

#### 문제로 확인하기

본문 94~104쪽

01. ④    02. ②    03. ②    04. ‘우리’: 대명사, ‘집’, ‘방’: 명사, ‘셋’: 수사  
05. ④    06. ②    07. ‘–ㄴ’, ‘–었–’, ‘–다’    08. ④    09. ③  
10. ①    11. ⑤    12. ⑧: 접속 조사    ⑥: 보조사    ⑦: 격조사    13. ⑤  
14. ②    15. ⑧: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    ⑥: 대등하게 이어진문장    ⑦: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    16. ④    17. ③    18. ②    19. ④

- 01** 관형사와 부사는 수식언으로서 형태 변화를 할 수 없어 불변어에 속한다. 가변어에는 용언(동사, 형용사)과 서술격 조사 ‘-이다’가 있다.
- 02** 체언(명사, 대명사, 수사)은 형태가 변할 수 없어서 불변어에 해당한다.
- | **오답 풀이** | ①, ④ 체언은 문장 내에서 홀로 쓰일 수도 있고 조사와 결합하여 쓰일 수도 있다.  
 ③, ⑤ 체언은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등으로 쓰이면서 중심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 03** <보기>에서 ‘하나’는 순서를 나타내지는 않으므로 양수사에 해당한다.
- 04** <보기>에서 ‘우리’는 인칭 대명사이고, ‘집’과 ‘방’은 보통 명사이며, ‘셋’은 양수사에 해당한다.
- 05** 전성 어미는 다른 품사의 기능을 수행하게 해 주지만, 품사 자체를 바꾸어 주지는 못한다.
- 06** ‘늘다’는 규칙 활용을 하는 용언이다.
- | **오답 풀이** | ① ‘짓다’는 ‘짓고, 지으니, 지어’ 등으로 활용할 때 어간이 변하는 활용을 하는 용언이다.  
 ③ ‘이르다’는 ‘이르러’로 활용할 때 어미가 변하는 활용을 하는 용언이다.  
 ④ ‘빠르다’는 ‘빨라’로 활용할 때 어간이 변하는 활용을 하는 용언이다.  
 ⑤ ‘파랗다’는 ‘파래’로 활용할 때 어간과 어미가 모두 변하는 활용을 하는 용언이다.
- 07** ‘큰’의 ‘-ㄴ’은 전성 어미로서 관형사형 어미이고, ‘만들었다’의 ‘-었-’은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이며, ‘-다’는 어말 어미로서 종결 어미이다.
- 08** ‘하다’가 ‘하였다’로 활용할 때 어간은 변하지 않고 어미만 변하였다.
- | **오답 풀이** | ① ‘돕다’는 ‘도우니’, ‘도와’, ‘돕고’ 등으로 활용하며, ‘ㅂ’ 불규칙 용언에 해당한다.  
 ② ‘맛있는’은 ‘맛있다’에서 활용한 말로, ‘-는’은 전성 어미로서 관형사형 어미이다.  
 ③ ‘하였다’의 ‘-다’는 어말 어미로서 종결 어미이다.  
 ⑤ ‘하였다’의 ‘-였-’은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이다.
- 09** 보조사는 앞말에 특별한 뜻을 더해 주는 기능을 하며, 접속 조사는 단어 및 단어 이상의 단위를 이어 주는 기능을 한다.
- 10** ‘영호는 저희와 결혼했다.’에서 ‘와’는 부사격 조사이다.
- | **오답 풀이** | ② ‘집을’에서 ‘을’은 목적격 조사이다.  
 ③ ‘조차’는 이미 어떤 것이 포함되고 그 위에 더함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에 해당한다.  
 ④ ‘날씨가’의 ‘가’와 ‘기분이’의 ‘이’는 주격 조사이다.  
 ⑤ ‘자유와 평등이’에서 ‘와’는 접속 조사이다.
- 11** 성상 관형사는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고, 지시 관형사는 특정한 대상을 가리킨다. ‘그 과제’에서의 ‘그’는 ‘과제’를 수식하는 지시 관형사이다.
- 12** ‘노인과 어린이들’에서 ‘과’는 단어를 이어 주는 역할을 하는 접속 조사이고, ‘어린이들마저’에서 ‘마저’는 앞말에 특별한 뜻을 더해 주는 보조사이며, ‘전쟁에’에서 ‘에’는 부사격 조사이다.
- 13** 앞 절이 뒤 절에 대해 조건의 의미를 갖는 겹문장은 예를 들어 ‘봄이 오면 꽃이 핀다.’와 같은 문장이다. 이런 문장은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에 해당한다.
- 14** ‘날씨가 어제보다 추워졌다.’에서는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므로 이 문장은 홀문장에 해당한다.
- 15** ①은 앞 절과 뒤 절이 인과 관계를 이루므로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에 해당하고, ⑥은 앞 절과 뒤 절이 나열 관계를 이루므로 대등하게 이어진문장에 해당한다. 그리고 ⑦은 앞 절이 뒤 절에 대한 조건에 해당하므로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에 해당한다.
- 16** 서술절은 절 전체가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데, 전성 어미와 같은 특별한 표지가 없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 17** ①의 주어는 ‘우리는’이고, ②의 명사절인 ‘우리가 좋아하던 선생님이 학교를 떠나셨음’의 주어는 ‘우리가 좋아하던 선생님이’이다.
- | **오답 풀이** | ① ①은 ‘우리가 좋아하던 선생님이 학교를 떠나셨음’이라는 명사절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② ②의 명사절인 ‘우리가 좋아하던 선생님이 학교를 떠나셨음’의 주어는 ‘우리가 좋아하던 선생님이’인데, 이는 ‘우리가 좋아하던’이라는 관형절을 안고 있다.  
 ④ ④의 인용절은 ‘어머니께서 아무 말 없이 맛있는 빵을 사주셨다고’이다.  
 ⑤ ⑤의 인용절인 ‘어머니께서 아무 말 없이 맛있는 빵을 사

주셨다고'의 목적어는 '맛있는 빵을'인데, 이는 관형절인 '맛 있는'을 안고 있다.

- 18 흘문장에 비해 결문장은 한 문장에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어 느낌과 생각을 상세히 전달하기에 적합하다.

- 19 ⑦은 동사 위주의 표현이고 ⑧은 명사 위주의 표현이다. 명사 위주의 표현은 동사 위주의 표현보다 독자의 인지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

| 오답 폴이 | ① 동사 위주의 표현은 명사 위주의 표현에 비해 구조가 복잡하다.

② 동사 위주의 표현은 명사 위주의 표현에 비해 한 문장에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다.

③ 동사 위주의 표현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충분히 담을 수 있다.

⑤ 명사 위주의 표현은 동사 위주의 표현에 비해 의미의 추상화 정도가 높다.

### 소단원 적중 문제

본문 112~115쪽

01. ⑤ 02. ④ 03. ⑤ 04. ⑧: <보기>에서 수사에 해당하는 것은 '첫째', '둘째'이며 둘 다 서수사에 해당한다. ⑥: <보기>에서 형용사에 해당하는 것은 '행복한', '건강한'이며 둘 다 성상 형용사에 해당한다.  
 05. ④ 06. (1) 수사, 조사와 결합하여 주어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수사에 해당한다. (2) 명사, 서술격 조사 '이야'와 결합하여 사용되고 있으므로 명사에 해당한다. 07. ④ 08. ④ 09. ① 10. ①  
 11. ⑦: 불규칙 용언, '굽다'가 '구워'로 활용되므로 어미가 변화하는 불규칙 용언이다. ⑧: 규칙 용언, '보내다'는 '보내어', '보내고' 등으로 활용되므로 일정한 규칙으로 변하는 규칙 용언이다. 12. ⑤ 13. ④ 14. ④  
 15. (1) 인간절은 '예전에 자주 들리던'이며, 이는 관형절에 해당한다. (2) 인간절은 '둘이서 편히 말할 수 있도록'이며, 이는 부사절에 해당한다.

- 01 앞의 형용사에 대해 지시성을 지닌 형용사는 지시 형용사로, '이러하다', '그러하다', '저러하다' 등이 있다. 성상 형용사는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낸다.

- 02 '크고'는 형용사이지만, '좋아한다'는 형용사가 아니라 동사에 속한다.

- 03 ⑧의 '나'는 대명사이지만, ⑨의 '그날'은 앞에서 이미 이야기한 날을 의미하는 명사이다.

- 04 '첫째', '둘째'는 수사 중 서수사에 해당하고, '행복한', '건강한'은 형용사 중 성상 형용사에 해당한다.

평가 기준	점수
⑧와 ⑨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찾고 종류를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6점
⑧와 ⑨에 해당하는 것 중 하나만 제대로 찾았거나 그 종류를 적절하게 서술하지 못한 경우	3점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1점

- 05 '가니'의 기본형 '가다'는 동사이므로 사람이나 사물의 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말이다. 사람이나 사물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은 형용사이다.

- 06 (1) '다섯이'의 '다섯'은 주격 조사 '이'와 결합하였으므로 수사에 해당한다.  
 (2) '정말이야'의 '정말'은 서술격 조사 '이야'와 결합하였으므로 명사에 해당한다.

평가 기준	점수
(1)과 (2) 둘 다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4점
(1)과 (2) 중 하나만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2점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1점

- 07 전성 어미는 품사를 바꾸지는 못하지만 다른 품사의 기능을 수행하게 해 주는 어말 어미이다.

- 08 조사는 관계언으로, 문장에 쓰인 단어들의 관계를 나타내는 역할을 한다. 문장 안에서 다른 말과 관계를 맺지 않고 홀로 쓰이는 것은 독립언에 해당하는 감탄사이다.

- 09 '어제 나는 친구와 만난 뒤'에서 '와'는 상대로 하는 대상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이다.

- 10 '잇다'는 '잇고', '이으니', '이어서' 등으로 활용하므로 'ㅅ' 불규칙 용언이다.

| 오답 폴이 | ② '푸르다'는 '푸르러'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어미가 변하는 '러' 불규칙 용언이다.

③ '싣다'는 '싣고', '실어', '실으니' 등으로 활용하므로 'ㄷ' 불규칙 용언이다.

④ '잊다'는 '잊고', '잊어', '잊으니' 등으로 활용하므로 규칙 용언이다.

⑤ '곱다'는 '곱고', '고와', '고우니' 등으로 활용하므로 'ㅂ' 불규칙 용언이다.

- 11 '구워'의 기본형인 '굽다'는 '굽고', '구워' 등으로 활용하므로 'ㅂ' 불규칙 용언이고 '보내다'는 '보내고', '보내어' 등으로 활

용하므로 규칙 용언이다.

평가 기준	점수
⑦과 ⑧에 대해 둘 다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5점
⑦과 ⑧ 중 하나만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3점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1점

- 12 ⑨의 ‘에서’는 행동이 이루어지는 처소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이다.

| 오답 풀이 | ① ⑨의 ‘만’은 보조사로서 다른 것으로부터 제한하여 어느 것을 한정함을 나타낸다.  
② ⑩의 ‘와’는 둘 이상의 사물이나 사람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접속 조사이다.  
③ ⑪의 ‘를’은 목적격 조사이다.  
④ ⑫의 ‘가’는 주격 조사이다.

- 13 ‘어제는 비가 와서 우리는 집 안에서 지냈다.’는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이다.

| 오답 풀이 | ①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하기’가 명사절에 해당한다.  
② ‘내가 자주 올라가던’이 관형절에 해당한다.  
③ ‘아무 말 없이’가 부사절에 해당한다.  
⑤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가 인용절에 해당한다.

- 14 ⑬의 안긴문장은 관형절인 ‘우리가 공부에 몰두하기에 좋은’ 인데, 이는 명사절인 ‘공부에 몰두하기’를 안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⑬의 인용절은 ‘자기가 살던 집이 여기서 그리 멀지 않다고’이다.  
② ⑭의 인용절인 ‘자기가 살던 집이 여기서 그리 멀지 않다고’는 관형절인 ‘자기가 살던’을 안고 있다.  
③ ⑮의 안긴문장은 관형절인 ‘우리가 공부에 몰두하기에 좋은’이다.  
⑤ ⑯의 주어는 ‘이 도서관은’이고, 안긴문장인 ‘우리가 공부에 몰두하기에 좋은’의 주어는 ‘우리가’이다.

- 15 (1) ‘예전에 자주 들르던’은 ‘식당’을 꾸며 주는 관형어 역할을 하므로 해당 문장은 관형절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2) ‘둘이서 편히 말할 수 있도록’은 서술어를 수식하는 부사어의 기능을 하므로 해당 문장은 부사절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평가 기준	점수
(1)과 (2) 둘 다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6점
(1)과 (2) 중 하나만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3점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1점

### 중단원 실전 문제

본문 117~120쪽

01. ② ⑨는 접사 ‘새–’가 ‘끼만’에 결합한 파생어이고, ⑩는 어근 ‘돌’과 어근 ‘길’이 결합한 합성어이다. 03. ② 04. 동음이의어는 소리는 같지만 뜻이 다른 단어로, 사전에서 별개의 표제어로 나타난다. 다의어는 관련성이 있는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단어로, 사전에서 동일한 표제어로 나타난다. 05. ② 06. ④ 07. ③ 08. ② 09. ④ 10. ⑧: 앞 절과 뒤 절이 대조의 의미 관계를 이루는 대등하게 이어진문장이다. ⑥: 앞 절과 뒤 절이 원인의 의미 관계를 이루는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이다. 11. ② 12. ④

- 01 ‘먹거리’는 용언의 어간 ‘먹–’에 명사 ‘거리’가 관형사형 어미 없이 결합한 것이므로 비통사적 합성어에 해당한다.

| 오답 풀이 | ① ‘새해’는 관형사(‘새’)와 명사(‘해’)가 결합한 것이므로 통사적 합성어이다.  
③ ‘덮밥’은 중간에 관형사형 어미의 결합 없이 어간에 명사가 결합한 것이므로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④ ‘산들바람’은 부사(‘산들’)가 명사(‘바람’)를 수식하므로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⑤ ‘높푸르다’는 중간에 어미의 결합 없이 어간과 어간이 직접 결합한 것이므로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 02 ‘새까만’의 기본형 ‘새까맣다’는 어근 ‘까맣다’에 접사 ‘새–’가 결합한 것이므로 파생어에 해당한다. ‘돌길’은 ‘돌’이라는 어근과 ‘길’이라는 어근이 결합한 것이므로 합성어에 해당한다.

평가 기준	점수
⑨와 ⑩ 둘 다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4점
⑨와 ⑪ 중 하나만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2점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1점

- 03 ‘다리<sup>2</sup>, 1<sub>2</sub>’는 ‘다리<sup>2</sup>’의 주변적 의미에 해당한다.

| 오답 풀이 | ① ‘다리<sup>1</sup>, 1<sub>2</sub>’는 ‘다리<sup>1</sup>’의 중심적 의미에 해당한다.  
③ ‘다리<sup>2</sup>, 1<sub>2</sub>’과 2<sub>2</sub>는 다의 관계에 있다.  
④, ⑤ ‘다리<sup>1</sup>’과 ‘다리<sup>2</sup>’는 동음이의어로서 의미적 연관성을 갖지 않는다.

- 04 동음이의어는 서로 다른 표제어에 해당하지만 다의어는 하나의 표제어 안에 놓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평가 기준	점수
〈조건〉 2가지를 모두 반영하여 동음이의어와 다의어의 차이를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5점
〈조건〉 중 1가지를 반영하여 서술한 경우	3점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1점

05 ‘덥다’는 ‘덥고’, ‘더워서’, ‘더우니’ 등으로 활용하므로 ‘ㅂ’ 불규칙 용언이다.

06 ‘많은’은 형용사 어간 ‘많–’과 관형사형 어미 ‘–은’이 결합된 형태인데, 품사는 형용사이다.

07 ‘친구들과 나는’에서의 ‘과는’ 보조사가 아니라 단어와 단어를 이어 주는 접속 조사에 해당한다.

08 ‘그에겐 크나큰 고민이 있다.’에서 ‘크나큰’은 관형사가 아니라 성상 형용사이다.

09 ‘내일은 아마 비가 오거나 눈이 올 것이다.’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다.

| 오답 풀이 | ① 앞 절이 뒤 절의 조건이 된다.

②, ③ 앞 절이 뒤 절의 원인이 된다.

⑤ 앞 절이 뒤 절의 양보의 의미 관계를 이룬다.

10 ⑧에서는 앞 절과 뒷 절이 대조의 의미 관계를 이루므로 ⑨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고, ⑩에서는 앞 절이 뒷 절의 원인이 되므로 ⑪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평가 기준	점수
⑧과 ⑩ 둘 다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4점
⑧과 ⑩ 중 하나만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2점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1점

11 ⑫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⑬에서 ‘–니’는 어떤 사실을 먼저 진술하고 이와 관련된 다른 사실을 이어서 설명할 때 쓰는 연결 어미이다.

| 오답 풀이 | ⑭을 한 문장으로 바꾸면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인근 숲에 다녀왔는데, 그 숲은 나무가 참 많았다.’가 된다.

⑮ ⑯에서 ‘–는데’는 종속적 연결 어미이다.

⑯을 한 문장으로 바꾸면 ‘가족들과 숲에서 특별한 일을 하지는 않았으나 그날이 나에게 특별한 날로 남았다.’가 된다. 이때 앞 절과 뒷 절은 대조의 의미 관계를 이룬다.

⑭ ⑮에서는 앞 절이 뒷 절의 원인이 된다.

12 ⑯의 안긴문장은 ‘높은 산의 정상에 오르기’라는 명사절이다. 이 명사절은 ‘높은’이라는 관형절을 안고 있다.

| 오답 풀이 | ⑰ ⑱의 인용절은 ‘내가 먹는 음식이 건강식이라고’이다.

⑲ ⑳의 안긴문장인 ‘내가 먹는 음식이 건강식이라고’는 관

형절인 ‘내가 먹는’을 안고 있다.

⑳ ㉑의 명사절은 ‘높은 산의 정상에 오르기’이다.

㉒ ㉓의 부사절은 ‘군소리 없이’이다.

## 2 청중에게 효과적으로 말하기

### (1) 상황에 맞게 발표하기

문제로 확인하기

본문 124~127쪽

01. ③ 02. ② 03. ② 04. ① 05. 어조

01 발표 내용을 청중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언어적·준언어적·비언어적 표현 전략을 골고루 활용할 수 있다. 준언어적·비언어적 표현에 비해 언어적 표현 전략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는 없다.

02 누구에게, 왜, 언제, 어디에서 발표하는지에 따라 발표의 내용과 표현이 달라질 수 있다. 청중의 관심사, 지식수준, 연령, 주제에 대한 태도 등을 고려하여 발표해야 하지만 청중의 옷차림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03 비언어적 표현은 문화적 차이에 따라 다르게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문화적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같은 손동작이라도 문화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

04 청중의 이해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시선을 던지는 것은 비언어적 표현 전략에 해당한다.

05 어조는 말의 분위기로, 화자의 감정이나 말하는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같은 말이라도 어조를 달리하면 의미가 달라진다.

소단원 적중 문제

본문 135~137쪽

01. ⑤ 02. ② 03. ② 04. ④ 05. ③ 06. 예 ‘필적’의 의미를 설명하여 청중의 이해를 돋고 있다. 07. ⑤ 08. ① 09. ⑦: 손으로 화면을 가리키며 ⑧: 청중을 바라보며 10. ⑤

01 발표는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실뿐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하는 의사소통 행위이다.

02 발표의 전개부에서는 중심 내용을 제시하고 청중의 이해를 돋기 위해 구체적 사례나 매체 자료 등을 활용한다. 발표의 주제·목적·배경 등은 주로 발표의 도입부에서 제시한다.

03 나에서 청중의 이해 정도를 확인한 후, 쉬운 문장으로 바꿔서 표현하는 언어적 표현 전략은 나타나지 않는다.

| 오답 풀이 | ① ‘메타버스가 상용화된 세상은 실제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신기루에 불과할까요?’ 등의 질문을 던져 청중의 흥미를 끌고 주의를 집중시키고 있다.

③ ‘신기루’라는 단어의 의미와 예를 제시하여 청중의 이해를 돋고 있다.

④ ‘배가 마치 하늘에 떠 있는 것처럼’과 같은 비유적인 표현을 활용하여 청중이 내용을 생생하게 이해하도록 돋고 있다.

⑤ ‘상용화’, ‘실재’ 등 객관적인 어휘를 사용하고 있으며 청중을 대상으로 한 격식 있는 어휘를 사용하고 있다.

04 <보기>의 발표는 ‘가축화’, ‘유형 성숙’ 등 청중의 수준에 비해 어려운 어휘들을 다수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청중이 발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

05 필적 감정 인공지능에 대해 소개하는 발표 주제와 관련하여 ‘일관성 쌍둥이는 글씨체도 똑같을까요?’라는 질문을 던져 청중의 흥미를 끌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다수의 청중을 대상으로 필적 감정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 설명하는 발표이다.

② 자기를 소개하고, 청중의 흥미를 끄는 질문을 던지는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발표의 도입부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④ 발표의 도입부에 해당하기 때문에 중심 내용을 요약하기보다는 주제와 관련하여 청중의 흥미를 끄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⑤ 단어의 의미를 쉽게 풀어 설명하거나 관련된 예를 제시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06 <보기>의 발표에서는 ‘필적은 뇌의 지문이라고도 불리는 개인의 고유한 특성’이라고 하며 단어의 의미를 설명하여 청중의 이해를 돋고 있다. 또한 ‘만일 이 부족한 인력을 … 찾 아낼 수 있지 않을까?’와 같이 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질문을 던져 궁금증을 유발하거나, 정확한 어휘와 간결한 문장을 사용하여 청중이 다소 낯설게 느낄 수 있는 내용을 명료하게 전달하는 등 다양한 언어적 표현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평가 기준	점수
사용된 언어적 표현 전략과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5점
사용된 언어적 표현 전략은 서술했으나,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제대로 서술하지 못한 경우	3점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1점

07 말의 속도는 말하는 내용의 난도나 청중의 이해 정도에 따라 자연스럽게 변화를 주며 조절하는 것으로 준언어적 표현 전략에 속한다.

| 오답 풀이 | ①, ② 비언어적 표현은 의미 전달에 영향을 주는 시선, 표정, 몸동작, 웃차림 등을 말하며, 언어적 표현으로 전달되는 내용을 보완하고 강화할 수 있다.

③ 준언어적·비언어적 표현 전략을 효과적으로 사용한다면 청중이 발표 내용을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④ 준언어적 표현은 언어적 표현에 덧붙여 의미 전달에 영향을 미치는 성량, 속도, 억양, 어조 등을 말한다.

08 가의 ‘화면을 보시겠습니다.’와 같은 말을 통해 시각 자료를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② 우리말을 더욱 다채롭게 만드는 방언의 가치를 설명하는 발표로, 우리나라 방언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

③ 방언이 갖는 가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발표로, 청중의 판단을 유도하는 것은 아니다.

④ 다른 나라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⑤ 중요한 내용을 전달할 때는 ‘(높은 목소리로)’와 같이 목소리를 높여 청중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전달하려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09 나에서 ‘매체 자료를 손으로 가리키고’라고 하였으므로 ⑦에는 손으로 화면을 가리키는 비언어적 표현 전략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청중의 이해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청중에게 시선을 던지거나’를 통해 ⑮에는 청중을 바라보는 비언어적 표현 전략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평가 기준	점수
⑦과 ⑮ 둘 다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4점
⑦과 ⑮ 중 하나만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2점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1점

10 발표를 할 때는 시선을 한곳에 고정하기보다는 청중에게 두루 시선을 던지며 청중의 이해 정도를 파악하는 등 상호작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2) 설득 전략을 활용하여 연설하기

### 문제로 확인하기

본문 138~141쪽

01. ⑤ 02. 공적인 신뢰 03. ⑤ 04. ④ 05. ② 06. ④  
07. 이성적

- 01 서로 의견을 교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의사소통 과정은 토의에 해당한다.
- 02 '화자가 청자에게 공적인 신뢰를 받을 만한 능력'을 화자의 공신력이라고 한다. 같은 내용의 말이라도 화자의 공신력에 따라 청중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진다.
- 03 [A]의 도입부에서 화자는 자신이 사회 문제와 관련된 소설을 쓰는 청소년 작가임을 밝히며 자신의 전문성을 드러냄으로써 공신력을 높이고 있다.
- 04 화자가 연설 주제와 관련하여 자신의 경험을 말하는 것이 공신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만, 개인적인 경험을 많이 말할수록 효과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 05 청중의 감성에 호소하여 설득하는 것을 감성적 설득 전략이라고 하며, 청중은 화자의 주장을 통해 기쁨, 슬픔, 분노, 연민, 공포와 같은 감정을 느낄 때 설득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화자의 주장을 통해 긍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설득되는 경우가 많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 06 [A]의 연설에서 화자는 육류 소비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보고서 내용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 07 이성적 설득 전략은 주장에 대해 타당한 근거를 들어 청중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것을 말한다.

### 소단원 적중 문제

본문 149~151쪽

01. ⑤ 02. ③ 03. ④ 04. 예 자신이 사회 문제와 관련된 소설을 쓰는 청소년 작가임을 밝히며 자신의 전문성을 드러내고, 자신의 경험을 연설의 주제와 연관 지어 제시하는 화자의 공신력을 활용한 설득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05. ⑥ 06. ⑥ 07. 예 친구의 말을 인용하고, 친구를 생각하며 병을 이겨 내려는 의지를 전달함으로써 청중의 감정을 자극하고 있다. 08. ⑤ 09. ④

- 01 화자가 청중에게 친근감을 표시하는 것도 화자의 공신력을 활용한 설득 전략 중 하나로, 이를 활용하면 청중은 화자에게 호감을 느끼고 화자를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게 된다.

- 02 [C]의 화자는 소심하고 자신감 없는 태도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청중에게 공신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 오답 폴이 | ① [A]의 화자는 의사로서 의학적 전문성을 가지고 마스크 착용을 권하고 있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다.

② [B]의 화자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자신이 말하는 바를 몸소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공신력을 갖는다.

④ [B]의 화자는 기아 돋기 활동에 대한 경험을 갖고 있을 뿐 의학적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에 대한 연설을 한다면 공신력을 얻을 수 없다.

⑤ [A]의 연설을 듣는 청중은 화자가 전문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신뢰할 만하고 평가할 것이다.

03 화자의 공신력을 활용한 설득 전략은 청중이 화자를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인식하여 화자에게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화자의 평소 성품, 평판, 전문적인 지식, 풍부한 경험뿐만 아니라 청중에게 친근감을 표시하거나 조리 있게 말하는 모습 등도 이러한 화자의 공신력에 영향을 끼친다. <보기>의 연설 주제와 관련하여 평소 관심을 갖고 조사해 왔다는 점을 조리 있게 말한다면 화자의 공신력을 높여 신뢰감을 획득할 수 있다.

| 오답 폴이 | ① 수치 자료를 제시하여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은 이성적 설득 전략에 해당한다.

② 건강이 악화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여 감정을 자극하는 것은 감성적 설득 전략에 해당한다.

③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것은 이성적 설득 전략에 해당한다.

⑤ 청중의 위기의식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감정에 호소하여 설득하는 감성적 설득 전략에 해당한다.

04 <보기>에서 화자는 자신이 사회 문제와 관련된 소설을 쓰는 청소년 작가임을 밝히고 있다. 이는 연설 내용과 관련하여 자신의 전문성을 드러낸 것으로 공신력을 활용한 설득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자신의 경험을 주제와 연관지어 제시한 부분 역시 공신력을 활용한 설득 전략으로 볼 수 있다.

평가 기준	점수
자신의 전문성 또는 경험을 드러낸 부분을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5점
자신의 전문성 또는 경험을 드러낸 부분은 찾았지만 서술 전략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지 못한 경우	3점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1점

**05** 구체적 사실이나 현상에서 일반적 원리를 이끌어 내는 것은 귀납 논증으로, 감성적 설득 전략이 아니라 이성적 설득 전략에 해당한다.

**06** ①의 화자는 육류 소비를 줄여야 한다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영국의 한 대학교의 보고서 내용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가축 사육이 환경 오염을 초래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모두 주장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를 들어 청중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이성적 설득 전략에 해당한다.

| **오답 풀이** | ①, ② 화자는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해 자신이 해 온 노력이나, 육류 소비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③ 화자는 자신의 주장을 청중에게 전달하고 있으며, 상대방의 반박에 대해 답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④ 화자는 2050년에는 이 지구상에 약 100억 명의 인구가 살게 된다는 자료를 제시하였지만, 연도에 따른 인구 변화율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07** <보기>의 화자는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친구의 말을 인용하고, 친구를 생각하며 병을 이겨내려는 의지를 전달함으로써 청중의 감정을 자극하고 있다.

평가 기준	점수
감성적 설득 전략을 사용하였음을 제시하고, 그 효과를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5점
감성적 설득 전략을 사용하였지만, 그 효과를 적절하게 서술하지 못한 경우	3점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1점

**08** ①에서 화자는 점박이물범에 대한 시각 자료를 제시하면서 ‘은회색 빛깔의 몸통 곳곳에 작은 점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동그란 눈망울과 작은 앞다리가 정말 귀엽지 않나요?’라고 말하며 점박이물범의 귀여운 외양을 소개하고 있다. 이는 외양 묘사를 통해 점박이물범에 대한 청중의 호감도를 증가시켜 청중의 마음을 움직이려는 감성적 설득 전략에 해당한다.

| **오답 풀이** | ① ② 화자는 점박이물범에 대한 구체적 통계 자료가 나타나 있지 않다.

② 점박이물범의 귀여운 외모를 강조하여 청중의 호감을 불러일으켰을 뿐, 특징을 객관적으로 제시하여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강화한 것은 아니다.

③ 점박이물범의 외양 소개와 자신의 꿈을 언급하고 있을 뿐, 점박이물범과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을 보이고 있진 않다.

④ ②에 점박이물범이 멸종 위기에 있다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09** ①에서는 점박이물범의 개체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여 신뢰성을 높이고 있을 뿐, 청중에게 인식 변화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②에서는 동아리 활동으로 변화를 이룬 경험을 제시하고 타 학교 학생들의 응원이 있었음을 이야기하며 청중의 감동을 불러일으키고자 하고 있을 뿐, 청중에게 실천적 행동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 중단원 실전 문제

본문 153~155쪽

01. ② 02. ④ 03. ④ 주제와 관련된 일상생활에서의 사례를 들어 청중의 호기심을 유발한다. 04. ② 05. ④ 청중이 발표 내용을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준다. 06. ③ 07. ① 08. ④ 강조하려는 부분에서 목소리를 크게 한다. ② 주먹을 쥐며 힘을 내라는 손동작을 한다. 09. ④ 10. ④ 평소 에너지 절약을 하는 모습을 보여 줘서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 노력한다.

**01** 발표의 목적은 청중에게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 또는 어떤 사실에 대해 전달하는 것이다. 청중의 마음을 움직여 설득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 말하기는 연설이다.

**02** ‘청중 1’은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메타버스를 주제로 해서 좋았다고 하며 추가 활동을 계획하고 있으나, 자신의 배경지식을 떠올리고 있지는 않다. ‘청중 3’도 발표로 인해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 유용했다고 하며 발표자가 다루지 않은 내용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고 있으나, 자신의 배경지식을 떠올리고 있지는 않다.

| **오답 풀이** | ① ‘청중 1’은 발표의 제재인 메타버스가 주변에서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하며 추가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② ‘청중 2’는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신기루’와 ‘공중누각’이라는 말의 뜻을 추론하고 있다.

③ ‘청중 3’은 발표자가 ‘메타버스’의 의미를 정확히 알려 주지 않았다면 아쉬움을 표현하였다.

⑤ ‘청중 1’, ‘청중 2’, ‘청중 3’은 모두 발표 내용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언급하고 있다.

**03** 언어적 표현 전략은 상황에 맞는 어휘를 선택하고 문장을 적절하게 구성하는 등 정제된 언어를 사용하여 발표 목적에 맞게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발표의 목적과 예상 청중을 고려하고 ‘한류 열풍을 타고 수출이 증가한 우리나라 음식들’이라는 발표 주제에 맞게 표현 전략을 적절하게 계획할 수 있어야 한다.

평가 기준	점수
발표 목적, 주제, 예상 청중을 고려하여 언어적 표현 전략을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5점
언어적 표현 전략을 서술했으나 주어진 발표 상황에 맞지 않는 경우	3점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1점

- 04 ⑧는 ‘가축화’, ‘사육되는’, ‘개체’, ‘두’ 등 어려운 어휘가 다수 사용되어 청중이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⑨는 ⑧를 쉬운 말로 풀어서 설명하는 언어적 표현 전략을 활용하여 청중의 이해를 돋고 있다.

- 05 ‘신기루’가 무엇인지 청중이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배가 마치 하늘에 띠 있는 것처럼’이라는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평가 기준	점수
비유적인 표현의 효과를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5점
비유적인 표현의 효과를 서술하였지만 정확하지 않은 경우	2점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1점

- 06 ⑩에 따르면 청중은 화자의 주장을 통해 기쁨, 슬픔, 분노, 연민, 공포와 같은 감정을 느낄 때 설득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분노의 감정을 느낀다고 해서 설득되기 어려운 것은 아니다.

- 07 ‘믿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말을 반복하는 것은 청중의 감정에 호소하는 감성적 설득 전략에 해당한다. 이것이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다고 볼 수는 없다.

- 08 <보기>에서 화자는 자신이 친구를 생각하며 힘을 내듯이, 여러분도 힘을 내라고 청중을 격려하고 있다. 청중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내용이므로 이에 어울리는 준언어적·비언어적 표현 전략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평가 기준	점수
연설의 내용에 어울리는 준언어적·비언어적 표현 전략을 각각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5점
연설의 내용에 어울리는 준언어적·비언어적 표현 전략 중 하나를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3점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1점

- 09 다른 학교 학생들이 ‘몰랐던 사실을 알려 줘서 고맙다, 힘을

내라’고 말해 줬다는 일화를 소개하며 청중에게 감동을 주는 감성적 설득 전략을 활용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점박이물범의 날이 8월 25일이라는 것을 언급하였지만 이것이 주장을 강화하는 이성적 설득 전략은 아니다.

② 다른 학교 학생들을 초대했다는 사실이 화자의 공신력을 강화하여 주지는 않는다.

③ 학교에서 공식적인 행사를 진행한다는 것이 화자의 공신력을 높여 주는 것은 아니다.

⑤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사항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

10 화자가 연설 내용과 관련하여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될 때 화자로서의 공신력을 갖는다. 화자의 평소 성품과 평판, 연설 주제와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이나 풍부한 경험에 공신력을 높이는 요소가 될 수 있다.

평가 기준	점수
연설의 주제와 관련하여 화자의 공신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5점
화자의 공신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서술하였으나 연설의 주제와 관련되지 않은 경우	2점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1점

### 대단원 시험 예상 문제

본문 159~163쪽

01. ③ 02. ③ 03. ⑦: 접사 ‘맨–’과 어근 ‘손’이 결합한 파생어이다. ⑧: 실질 형태소이자 의존 형태소인 ‘아프–’와 형식 형태소이자 의존 형태소인 ‘–다’가 결합한 말이다. 04. ③ 05. ② 06. ④ 07. ④ ⑦의 예로 ‘참–거짓’, ⑧의 예로 ‘길다–짧다’, ⑨의 예로 ‘오다–가다’를 들 수 있다. 08. ④ 09. ② 10. ⑤ 11. ⑧는 체언 ‘지역’을 꾸며 주고 특정한 대상을 가리키므로 지시 관형사에 해당하고, ⑨는 용언 ‘다채롭게’를 꾸며 주고 문장 내의 한 성분만 수식하므로 성분 부사에 해당한다. 12. ⑥ 13. ③ 14. ④ 15. ③ 16. ① 17. ⑤ 18. ① ⑩에 이처럼 필적은 뇌의 지문이라고도 불리는 개인의 고유한 특성이기 때문에 은행, 검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세청 등 다양한 기관에서 본인 확인의 수단으로 흔히 사용되곤 하지만 위조가 쉽다는 단점이 있죠. ② ⑩에 겹문장의 경우 훌륭장에 비해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으나, 내용을 강조하거나 긴장감을 유발하는 효과가 적다.

- 01 ‘곁눈질’은 ‘곁눈으로 보는 일’을 의미하는데, 이때 ‘곁’은 접사가 아니라 명사이다.

02 ‘강가’에서 ‘가’는 접미사가 아니라 ‘주변’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명사에 해당한다.

03 ‘맨손’의 ‘맨–’은 접두사이고 ‘손’은 명사이다. ‘아프다’는 어간 ‘아프–’와 어미 ‘–다’의 결합형인데, 어간은 실질 형태소 이자 의존 형태소이고 어미는 형식 형태소이자 의존 형태소이다.

평가 기준	점수
⑦과 ⑧에 대해 모두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6점
⑦과 ⑧ 중 하나만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3점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1점

04 ‘한겨울’은 ‘한장인’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한–’과 명사 어근 ‘겨울’이 결합한 파생어이다. ‘헛소리’도 ‘이유 없는’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헛–’과 명사 어근 ‘소리’가 결합한 파생어이므로 ‘한겨울’과 단어 형성 방식이 동일하다.

- | **오답 풀이** | ① 어근 ‘앞’과 어근 ‘뒤’가 결합한 합성어이다.  
② 어근 ‘덮–’과 어근 ‘밥’이 결합한 합성어이다.  
④ 동사 ‘작다’의 어간 ‘작–’과 명사 ‘오빠’가 관형사형 어미 ‘–은’에 의해 결합한 합성어이다.  
⑤ 동사 ‘걷다’의 어간 ‘걷–’과 동사 ‘가다’의 어간 ‘가–’가 연결 어미 ‘–어’에 의해 결합한 합성어이다.

05 ‘산들바람’은 부사 ‘산들’과 명사 ‘바람’이 결합한 합성어인데, 부사가 체언을 수식하는 것은 우리말의 일반적인 통사 구성 방식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통사적 합성어가 아니라 비통사적 합성어에 해당한다.

06 ‘직업’은 ‘작가’의 상위어이고, ‘작가’는 ‘직업’의 하위어이므로 ‘직업’과 ‘작가’는 상하 관계에 있는 단어들이다.

- | **오답 풀이** | ①, ② 반의 관계에 있는 단어들이다.  
③, ⑤ 유의 관계에 있는 단어들이다.

07 ‘참–거짓’, ‘죽다–살다’와 같이 상호 배타적 대립 관계를 이루는 반의어가 상보 반의어이고, ‘길다–짧다’, ‘크다–작다’와 같이 정도성을 가지는 척도에서 대립 관계를 이루는 반의어가 정도 반의어이다. 또한 ‘오다–가다’, ‘시작–끝’과 같이 두 단어가 상대적 관계를 형성하면서 의미상 대칭을 이루는 반의어는 관계 반의어이다.

평가 기준	점수
⑦, ⑧, ⑨의 예를 모두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5점
⑦, ⑧, ⑨의 예 중 2가지만 제대로 서술한 경우	3점
⑦, ⑧, ⑨의 예 중 1가지만 제대로 서술한 경우	1점

08 ‘우제목 솟과’는 ‘양’의 상위어이므로 ‘양’에 비해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를 나타낸다. 개별적이고 한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하위어의 특징이다.

09 ‘잡다’는 규칙 활용을 하는 용언에 해당한다.

- | **오답 풀이** | ① ‘낫다’는 ‘낫고, 나아, 나오니’ 등으로 활용하므로 ‘ㅅ’ 불규칙 용언이다.  
③ ‘뭍다’는 ‘뭍고, 물어, 물으니’ 등으로 활용하므로 ‘ㄷ’ 불규칙 용언이다.  
④ ‘이르다’는 ‘이르고, 이르러’ 등으로 활용하므로 ‘러’ 불규칙 용언이다.  
⑤ ‘노랗다’는 ‘노랗고, 노래’ 등으로 활용하므로 ‘ㅎ’ 불규칙 용언이다.

10 ‘학교에서부터’에서 ‘에서’는 부사격 조사이고 ‘부터’는 보조사이다.

- | **오답 풀이** | ① ‘개는 늑대와 비슷하게 생겼다.’에서 ‘와’는 부사격 조사에 해당한다.  
② ‘적극적이다’에서 ‘이다’는 명사 ‘적극적’ 뒤에 붙어 주어의 속성을 나타내는 서술격 조사이다.  
③ ‘너와 내가’에서 ‘와’는 단어와 단어를 이어 주는 접속 조사이다.  
④ ‘구워도’의 ‘도’는 어미 ‘–어’ 다음에 연결된 것이고, ‘삶아도’의 ‘도’는 어미 ‘–아’ 다음에 연결된 것이다.

11 관형사와 부사는 수식언으로, 문장에서 다른 단어를 꾸며 주는 역할을 한다. 관형사는 주로 체언 앞에 놓여 체언을 꾸며 주고 부사는 주로 문장이나 용언을 꾸며 준다.

평가 기준	점수
〈조건〉에 따라 ⑧와 ⑨에 대해 모두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5점
〈조건〉에 따라 ⑧와 ⑨에 대해 둘 중 하나만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3점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1점

12 발표는 여러 사람 앞에서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 또는 어떤 사실에 대해 말하는 의사소통 행위이다. 청중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것은 연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전략 중 하나이다.

13 비언어적 표현 전략은 언어적 표현과 준언어적 표현 이외에 의미 전달에 영향을 주는 시선, 표정, 몸동작, 웃차림 등을 말한다. 담화 표지를 사용하는 것은 언어적 표현 전략에 해당한다.

14 ④에서 ‘하늘’과 ‘공중’은 유의 관계로 사용되었지만, 유의 관계에 있는 단어들의 의미가 비슷하더라도 쓰이는 상황이나 가리키는 대상의 범위가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서로 완전히 대치할 수는 없다.

15 ①에서는 홀문장을 사용하는 경우에 얻을 수 있는 효과와 겹문장을 사용하는 경우에 얻을 수 있는 효과에 대해 비교·대조하여 설명하고 있다.

16 ‘통념’은 ‘일반적으로 널리 통하는 개념’을 의미하는데, ④의 도입부에서 화자가 ‘일관성 쌍둥이는 글씨체도 똑같을까요?’라고 하며 질문을 던진 것은 통념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청중의 궁금증을 유발하여 주의를 집중시키고자 한 것이다.

17 발표를 할 때 몸동작과 같은 비언어적 표현을 적절히 사용하면 오히려 언어 표현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18 겹문장은 홀문장을 서로 연결하여 만들 수 있는데, 홀문장은 생각의 뚜렷한 전달에 알맞고 강조와 긴장감 유발의 효과가 있는 반면 겹문장은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고 생각의 상세한 전달에 알맞으며 논리적 관계에 대한 설명에 적합하다.

평가 기준	점수
(1)과 (2)를 모두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6점
(1)과 (2) 중 하나만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3점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1점

## III 담화와 협력적 문제 해결

### 1 담화의 표현과 구성

#### (1) 어휘와 문법 요소의 기능

##### 문제로 확인하기

본문 170~178쪽

01. ④ 02. 어휘 03. ② 04. ③ 05. ① 06. 격식체, 비격식체 07. ⑤ 08. -았었-/었었- 09. 오늘(시간 부사), 관형사형 어미 ‘-ㄴ’, 선어말 어미 ‘-ㄴ-’ 10. 화자의 추측 11. ② 12. ③ 13. ④ 14. 어제 형우가 나에게 오늘 함께 영화 보러 가자고 말했다. 15. ①

01 발화의 의미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화자, 청자, 시간적·공간적 상황과 같은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발화의 의미가 맥락에 관계 없이 언제나 일정하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02 [A]에서 두 화자는 ‘과감한, 개혁’, ‘사유화, 무서운 탐욕’과 같은 어휘를 선택하여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 각각 긍정적 태도와 부정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03 ‘빨리 집에 가라.’는 명령형 종결 어미 ‘-라’를 사용한 명령문이다. 명령문은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는 문장에 해당한다.

04 ‘미술 선생님은 교무실에 계신다.’에는 ‘계시다’를 통해 주체 높임은 실현되어 있지만, 객체 높임은 실현되어 있지 않으므로 ⑤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다.

05 ‘할머니는 사과를 깎으신다.’는 ‘-으시-’가 할머니를 직접 높이고 있으므로 직접 높임의 사례에 해당한다.

06 상대 높임법의 체계에는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같은 상대라도 상황에 따라 격식체나 비격식체를 달리 사용할 수 있다.

07 ‘많다’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은’과 결합하면 현재 시제를 표시한다.

- | 오답 풀이 | ① 동사 ‘심-’에 관형사형 어미 ‘-은’을 결합하면 과거 시제를 표시한다.  
② 선어말 어미 ‘-았-’은 과거 시제를 표시한다.  
③ 선어말 어미 ‘-더-’는 과거 시제를 표시한다.  
④ 관형사형 어미 ‘-던’은 과거 시제를 표시한다.

**08**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았었-/–었었–’을 사용하면 과거의 느낌을 강하게 줄 수 있고, 현재와 다르거나 단절된 상황을 강조하려는 의도를 드러낼 수 있다.

**09** 현재 시제는 ‘–는–/–ㄴ–’과 같은 선어말 어미, ‘–는’과 같은 관행사형 어미와 오늘, 지금 등의 시간 부사를 통하여 실현된다.

**10** ‘지금 떠나면 새벽에 도착하겠구나.’의 ‘–겠–’은 화자의 추측을 드러내는 기능을 한다.

**11** <보기>에서 설명하는 동작상은 완료상이다. 그러나 동생은 지금 방에서 ‘자고 있다’에는 ‘–고 있다’를 사용하여 진행상만 표시되어 있으므로, ②는 <보기>에서 설명하는 동작상이 실현된 문장이 아니다.

| 오답 풀이 | ① ‘피어 있다’에는 ‘–어 있다’와 같이 완료상이 사용되었다.

③ ‘해 버리고 나니’에는 ‘–여 버리다’와 ‘–고 나다’와 같이 두 번의 완료상이 사용되었다.

④ ‘써 둔’에는 ‘–어 두다’와 같이 완료상이 사용되었다.

⑤ ‘작성해 놓았지만’에는 ‘–여 놓다’와 같이 완료상이 사용되었다.

**12** ⑦에는 무는 행위의 주체인 ‘모기’가 드러나 있다. 따라서 ‘무는’ 행위의 주체를 밝히지 않았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⑦에는 ‘물다’에 피동 접미사 ‘–리–’가 결합한 피동사 ‘물리다’가 사용되었다.

②, ④ ⑨은 접미사 ‘–되다’를 사용한 피동문으로, 우유 가격을 인상한 주체를 밝히지 않고 현상을 진술하고 있다.

⑤ ⑦과 ⑨ 모두 피동 표현을 사용하여 행위의 주체보다 행위를 당한 대상을 강조하고 있다.

**13** ‘지하철에서 사람들에게 밀려 넘어졌다.’에서 ‘밀려’는 피동사를 이용한 피동 표현, ‘넘어졌다’는 ‘–어지다’를 활용한 피동 표현에 해당한다.

| 오답 풀이 | ① 사동 접미사 ‘–히–’가 결합한 사동사에 의해 실현된 사동 표현이다.

② 사동 접미사 ‘–우–’가 결합한 사동사에 의해 실현된 사동 표현이다.

③ 접미사 ‘–시키다’에 의해 실현된 사동 표현이다.

⑤ 사동 접미사 ‘–기–’가 결합한 사동사에 의해 실현된 사동 표현이다.

**14** <보기>의 직접 인용문을 간접 인용문으로 바꾸면 인용문 안에 있는 ‘내일’이 ‘오늘’로 바뀌고, 큰따옴표와 조사 ‘라고’ 대신 조사 ‘고’를 사용하여 ‘가자고’로 바뀌게 된다.

**15** 짧은 부정문은 ‘안’, ‘못’을 사용하여 만든 부정문이므로 ‘안 할래.’가 짧은 부정문에 해당한다.

### 소단원 적중 문제

본문 187~189쪽

01. ⑤ 02. ⑩ [A]에서는 ‘반발’이라는 어휘를 사용하여 계획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B]에서는 ‘호응’이라는 어휘를 사용하여 계획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인 태도를 드러낸다. 03. ⑤ 04. ②

05. ⑩ 상대 높임법의 격식체를 사용하면 청자와 다소 거리를 두면서 예의를 갖추거나 공식적으로 대하는 느낌을 줄 수 있고, 비격식체를 사용하면 청자와의 친밀감을 나타낼 수 있다. 06. ② 07. ① 08. 미래의 사건이 이미 계획되고 정해진 사실임을 강조하는 표현 효과를 낼 수 있다. 09. ⑤ 10. ⑤ 11. ③ 12. ① 13. ⑦에 사용된 높임 표현은 객체 높임 표현인 ‘뵈라’와 상대 높임 표현인 ‘–지’이다. 객체 높임 표현을 통해서는 ‘보도국장님’을 높이고 있고, 종결 어미 ‘–지’는 해체에 해당하므로 청자인 ‘나리’를 낮추는 기능을 하고 있다. 또한 ⑦에 사용된 시간 표현은 선어말 어미 ‘–겠–’으로, 화자인 ‘화신’의 추측을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14. ②

**01** ‘입니다’는 서술격 조사이다. 이러한 어휘를 통해 공기업 민영화를 반대하기 위한 행동을 촉구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분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2** 담화를 구성할 때 화자는 어휘 선택을 통해 자신의 생각이나 태도를 드러낼 수 있다. [A]의 화자는 ‘반발’, ‘우려’라는 어휘를 사용하여 ‘이번 계획’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으며, [B]의 화자는 ‘호응’, ‘기대’라는 어휘를 사용하여 ‘이번 계획’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평가 기준	점수
[A]와 [B]에 사용된 어휘와 화자의 태도를 모두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4점
[A]와 [B] 중 한 가지만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2점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1점

**03** <보기>에서 설명하는 문장은 명령문이다. ‘내일은 비가 하루 종일 내리겠습니다.’의 경우 평서문으로, 명령문에 해당하지 않는다.

**04** ⑦에서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한 것은 맞지만 이는 청자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았는’ 행위의 주체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 문장의 경우 청자와 행위의 주체가 일치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으나,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 05** 상대 높임법은 화자가 청자에 대하여 높이거나 낮추어 말하는 방법으로, 크게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나눌 수 있다. 같은 상대라도 상황에 따라 격식체나 비격식체를 달리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는 화자의 태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평가 기준	점수
격식체와 비격식체에 담을 수 있는 화자의 의도를 모두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6점
격식체와 비격식체 중 하나만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3점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1점

- 06** <보기>에는 ‘우산’을 통해 높임의 대상인 ‘선생님’을 간접적으로 높이는 간접 높임 표현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선생님은 지금 서울에 안 계신다.’의 경우 직접 높임 표현에 해당한다.

- 07** ⑦의 ‘-ㄴ’은 동사의 어간 ‘보-’에 결합했으므로 과거 시제를 실현하고 있다. 그러나 ⑤의 ‘-ㄴ’은 형용사의 어간 ‘시원하-’에 결합했으므로 현재 시제를 실현하고 있다.

- 08** ‘-ㄴ-’은 현재 시제를 표현하는 선어말 어미이지만, 미래의 사건에 선어말 어미 ‘-ㄴ-’을 사용하면 이미 계획되고 정해진 사실임을 강조하는 표현 효과를 낼 수 있다.

평가 기준	점수
선어말 어미 ‘-ㄴ-’의 표현 효과를 바르게 서술한 경우	3점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1점

- 09** ‘맡기고’의 ‘-기-’는 피동 접미사가 아니라 사동 접미사이다. 따라서 ‘맡기고’는 ⑦에 해당하지 않는다.

- 10** ⑧에는 사동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다. ‘알려진’은 피동 표현에 해당한다.

- 11** ⑨의 ‘쓰러지-’는 동사의 어간이다. 동사의 어간에 결합한 ‘-ㄴ-’은 과거 시제를 표시하는 역할을 한다.

- 12** 행위의 주체보다 행위를 당한 대상을 강조하는 표현은 인용 표현이 아니라 피동 표현을 사용하여 얻을 수 있는 표현 효과에 해당한다.

- 13** ⑩에는 높임 표현으로 객체 높임 표현인 ‘뵈리’와 상대 높임 표현인 ‘-지’가 사용되었으며, 시간 표현으로는 선어말 어미 ‘-겠-’이 사용되었다.

평가 기준	점수
⑦에 사용된 높임 표현과 시간 표현, 그 의도를 모두 바르게 서술한 경우	6점
⑦에 사용된 높임 표현과 시간 표현 중 한 가지만 표현과 의도를 바르게 서술한 경우	3점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1점

- 14** ⑧는 실수를 하지 않겠다는 나리의 의지를 담고 있으므로 의지 부정에 해당하고, ⑩은 일 등을 할 수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므로 능력 부정에 해당한다.

## (2) 짜임새 있는 담화의 구성

문제로 확인하기

본문 190~195쪽

01. ②    02. ②    03. ④    04. ⑦, 앞에서 언급한 ‘필통’을 다시 가리키는 역할을 한다.    05. ②    06. ④

- 01** 짜임새 있는 담화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주제와 관련된 발화를 조합해야 한다. 따라서 최대한 다양한 내용을 담은 발화를 조합하여 주제를 다양화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02** [A]의 발화들이 모여 하나의 주제를 완결되게 만들어 낸다고 보기 어렵지 않아 ⑦과 ⑧은 의미적 관련성이 있으며, ⑨과 ⑩도 의미적 관련성이 있다. 따라서 [A]의 ⑦과 ⑧, ⑨과 ⑩이 의미적 관련성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03** ‘너무나도 사랑하는 떤’은 ‘소설 이외의 다른 것’을 대용하는 표현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다.

- 04** ⑦은 앞에서 언급한 ‘필통’을 다시 가리키는 대용 표현에 해당하고, ⑩은 담화의 맥락 속에서 화자와 청자 모두에게서 멀리 떨어진 것을 가리키는 지시 표현에 해당한다.

- 05** ‘먼저’, ‘다음에는’, ‘마지막으로’는 접속 표현 중 시간적 순서를 나타내는 것들이다.

- 06** ⑪은 ‘자신의 꿈과 목표’를 가리키는 대용 표현이고, ⑫은 ‘가족과 친구들의 지지와 사랑’을 가리키는 대용 표현이다. ⑬은 의미하는 바가 다르므로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다.

## 소단원 적중 문제

본문 202~204쪽

01. 예) 앞 발화와 뒤 발화 사이에 '하지만'이나 '그러나'와 같은 접속 표현을 사용한다. 02. ② 03. ② 04. ⑤ 05. (1) 대용 표현, '어릴 때 많이 아팠던 적'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2) 대용 표현, '다음 달 건강 검진'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06. ④ 07. 담화의 주제는 태풍인데 태풍과 관련 없는 눈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담화의 응집성을 해친다. 08. ① 09. ② 10. 앞 발화와 뒤 발화가 상반되는 내용을 담고 있음을 드러내어 담화 구조를 선명하게 보여 준다. 11. ⑤

- 01 <보기>는 '고등어'라는 하나의 주제와 관련된 발화들로 담화를 구성하고 있지만, 발화 간의 관계나 발화들을 나열한 의도를 효과적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이때 첫 번째 발화와 두 번째 발화 사이에 '하지만'이나 '그러나'와 같은 표지를 넣어 주면 담화를 응결성 있게 구성할 수 있다.

평가 기준	점수
발화 간의 응결성을 높이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4점
발화 간의 응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서술했으나 그 타당도가 떨어지는 경우	2점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1점

- 02 '강아지'는 '동물'의 하위어이다. 따라서 어휘의 상하 관계를 활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03 ⑤의 '거기'는 '하림'과 '동하'의 대화 맥락 속에 존재하는 장소가 아니라, 앞에서 언급한 '모임 장소'를 대용하는 표현이다.

- 04 ⑤는 앞에서 언급한 '가족과 친구들의 지지와 사랑'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지시 표현이 아니라 대용 표현에 해당한다.

- 05 (1)의 '그때'는 '어릴 때 많이 아팠던 적'을 가리키고, (2)의 '그때'는 '다음 달 건강 검진'을 가리킨다. 두 표현은 화자가 앞에서 언급한 내용을 다시 가리키는 대용 표현이라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평가 기준	점수
(1)과 (2)에 사용된 표현과 그 의미를 모두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6점
(1)과 (2) 중 하나만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3점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1점

- 06 '해로운'과 '유용한'이 의미상 상하 관계에 놓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통해 발화 간의 응집성을 높인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07 담화의 주제는 '태풍'에 관련된 것인데 ④는 '눈'에 대한 내용이다. 이는 담화의 주제에서 벗어난 것이므로 담화의 응집성을 해친다.

평가 기준	점수
④가 담화의 응집성을 해치는 발화인 이유를 바르게 서술한 경우	3점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1점

- 08 '물론'은 '말할 것도 없음.'이라는 의미를 지니는 접속 표현으로 앞 발화에 제시된 사람들의 우려에 대한 수긍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앞 발화에 제시된 사람들의 우려가 비합리적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09 이 담화의 주제는 '자기 조절 능력과 창의성 간에는 긴밀한 관계가 있다.'이다. 따라서 '창의성이 뛰어난 사람은 자기 조절 능력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셨는데'는 담화의 주제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다.

- 10 '반면'은 뒤에 오는 말이 앞의 내용과 상반됨을 나타내는 말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접속 표현을 사용하면 이어질 내용이 앞의 발화와 상반된 내용임을 드러낼 수 있어 담화 구조를 선명하게 보여 주는 효과가 있다.

평가 기준	점수
⑤의 역할을 담화 구조와 연계하여 바르게 서술한 경우	5점
⑤의 역할을 서술했으나 담화 구조와의 연계까지 밝히지 못한 경우	3점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1점

- 11 ⑤는 앞에서 언급한 말을 대용하는 표현에 해당한다. 따라서 담화 상황에서 화자에게 가까운 대상을 가리키기 위해 사용하는 지시 표현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중단원 실전 문제

본문 206~208쪽

01. ⑤ 02. ③ 03. ⑤ 04. 예) '하십시오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공식적 담화이기 때문에 격식을 차려 시청자를 높이려는 이유이다. 05. ⑤ 06. ⑤ 07. '실패', '성공'과 같은 반의 관계에 놓인 단어를 활용하여 담화의 응결성을 높이고 있다. 08. ③ 09. 앞에서 언급한 내용을 대용함으로써 중복된 내용이 기술되지 않도록 한다. 10. ⑤ 11. ③ 12. ②

01 ‘한편’은 시간적 순서를 나타내는 접속 표현이 아니라, 앞에서 나온 내용과 뒤 내용이 다름을 드러내는 표지에 해당한다.

02 ⑤의 ‘밝힌’이 사동 표현이기는 하지만, 이를 통해 글쓴이가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자 한 것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다.

03 ‘지시했습니다’는 ‘지시하-+-였-+-습니다’로 분석된다. 따라서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였-’이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04 이 담화에서 보도 기자는 방송이라는 공식적 상황에서 불특정 다수인 시청자를 높이기 위해 격식체인 ‘하십시오체’를 사용하고 있다.

평가 기준	점수
보도 기자가 사용하는 상대 높임법의 종류와 그러한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를 모두 바르게 서술한 경우	4점
보도 기자가 사용하는 상대 높임법의 종류와 그러한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 중 한 가지만 바르게 서술한 경우	2점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1점

05 ‘원대하-’는 형용사의 어간이기 때문에 여기에 결합한 ‘-ㄴ-’은 현재 시제를 표시한다.

06 ⑧에는 특수 어휘가 사용되어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다. 이 문장에 사용된 높임 표현은 주체 높임과 상대 높임이다.

07 이 담화에서는 담화의 응결성을 높이기 위해 ‘실패’와 반의 관계에 있는 ‘성공’이라는 어휘를 활용하고 있다.

평가 기준	점수
담화에 사용된 어휘의 사례를 들어 의미 관계를 바르게 서술한 경우	4점
의미 관계에 대해서는 바르게 서술했으나 담화에 사용된 어휘의 사례를 들지 못한 경우	2점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1점

08 ⑨에는 피동 표현이 아니라 ‘입히는’이라는 사동 표현이 사용되었다.

09 ⑨는 앞선 발화 내용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 사용한 대용 표현이다. ⑨의 앞에 나온 ‘태풍은 수자원을 공급해서 물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또 태풍은 해수를 뒤

섞어 순환시켜서 바다의 적조 현상을 소멸시키기도 한답니다.’라는 내용을 대용하는 표현이다.

평가 기준	점수
담화에 사용된 어휘의 사례를 들어 의미 관계를 바르게 서술한 경우	4점
의미 관계에 대해서는 바르게 서술했으나 담화에 사용된 어휘의 사례를 들지 못한 경우	2점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1점

10 겸양 표현 ‘제’와 객체 높임 표현 ‘드리는’을 사용한 것이 맞지만 화자 자신을 높이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화자 자신을 낮추는 겸양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11 ⑨는 담화의 맥락 속에서 화자에게 가까운 대상을 가리키기 위해 사용한 것이고, ⑩는 화자와 청자 모두에게 멀리 떨어진 것을 가리키기 위해 사용한 것이다.

12 ⑨은 상대방의 의견에 반대되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견에 일부 수긍하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 2 협력적으로 문제 해결하기

### (1) 토의로 문제 해결하기

#### 문제로 확인하기

본문 212~220쪽

01. ⑤ 02. ③ 03. ④ 04. ④ 05. ④ 06. 난방 섭씨 18~20도, 냉방 섭씨 25~28도 유지하기 07. ① 08. ④ 09. 대안: 개인 다회용 컵 사용하기, 실행 방안: 안내문 작성하기, 컵에 이름표 붙이기, 컵 보관함 설치하기

01 토의의 주제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가치가 있으며 시의적절해야 하므로, ‘시기나 상황에 관계 없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02 <보기>에 제시된 토의 절차는 ‘심포지엄’에 해당한다. ‘심포지엄’은 강연 형식으로 발표한 후, 청중과의 질의응답을 가지는 것이 특징이다.

**03** ‘학생 2’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자료’를 제시하며 ‘이산화 탄소 배출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는 문제 상황을 언급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재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 주고 있을 뿐, 구체적인 해결 방안은 소개하고 있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사회자’는 공동체의 문제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우리 학생들도 지구의 구성원으로서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데 힘을 모으고자 ‘학급 내 탄소 중립 실천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라고 하며 토의 문제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② ‘사회자’는 ‘지금부터 ‘학급 내 탄소 중립 실천 방안’에 대해 토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며 토의의 시작을 알리고, ‘이를 위해 먼저 기후 위기 문제와 그 원인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며 절차에 따라 토의를 진행하고 있다.

③ ‘학생 1’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지구 온도 상승으로 이 상 기후 현상이 발생했다는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⑤ ‘학생 3’은 ‘탄소 발자국 비중’ 그래프를 통해 일상생활에서도 많은 양의 온실가스가 배출됨을 지적하고,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일상에서의 실천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04** ‘학생 3’은 ‘학생 4’의 의견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있으므로, ‘학생 4’의 의견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대안을 요구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학생 1’은 일회용 종이컵 대신 개인 다회용 컵을 사용하자는 ‘학생 2’의 대안에 대해 ‘바로 종이컵 사용을 금지하면 미리 구매한 종이컵은 또 다른 쓰레기가 되지 않을까요?’라고 하며 대안의 문제점과 우려되는 점을 지적하였다.

② ‘학생 1’은 ‘탄소 발자국’ 자료를 참고하고 있는데, 이 자료는 토의의 이전 단계인 ‘문제 제시 및 분석’ 단계에서 ‘학생 3’이 제시했던 자료이다.

③ ‘학생 2’는 ‘학생 3’이 언급한 보도 자료의 내용에 대해 ‘5분간의 소동 행사로 전력이 그만큼이나 절감되었다니 놀랍습니다.’라고 하며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

⑤ ‘학생 4’는 ‘학생 1’이 등하교 시 짧은 거리는 자전거나 도보를 이용하자는 의견에 ‘좋은 생각입니다.’라고 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05** 토의의 ‘대안 도출’ 단계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여 폭넓은 대안을 도출하는 일이 이루어진다.

**06** ‘학생 4’는 ‘난방은 섭씨 18~20도, 냉방은 섭씨 25~28도를 유지하는 것도 탄소 중립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며 이를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07** ‘학생 1’은 ‘그 부분은 미처 생각해 보지 못했네요.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하며 다른 친구의 지적을 수용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② ‘학생 2’는 냉난방기와 관련하여 온도 설정은 학교 측에 건의해야 하는 내용이므로 학생 차원에서 실천할 수 없어 대안으로 선택하기 어렵다고 평가하고 있다.

③ ‘학생 3’은 ‘학급 내’라는 토의 문제의 범위를 언급하며 학급 내에서 실천 가능한지 판단해야 한다고 말하였으나, 다른 대안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다.

④ ‘학생 3’은 등하교와 관련된 대안에 대해 짧은 거리의 기준도 애매하고, 다른 변수가 많아 객관적인 기준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⑤ ‘학생 4’는 다른 친구들이 언급한 판단 기준에 따라 대안들을 평가하고 있을 뿐, 새로운 판단 기준을 추가하고 있지는 않다.

**08** 컵 보관함과 관련하여 컵들이 뒤죽박죽 쌓여서 헛갈리거나 정돈이 되지 않아 자기 컵을 찾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지적할 뿐, 컵 보관함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09** 컵과 관련하여 선정된 대안은 ‘개인 다회용 컵 사용하기’이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컵 보관함을 만들고, 이름표를 부착하도록 하기로 하였으며, 차곡차곡 쌓도록 안내문을 부착하기로 하였다.

### 소단원 적중 문제

본문 226~229쪽

01, ⑤ 02, ③ 03, ② 04, ② 05. 토의 문제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토의의 순서에 맞게 진행해야 한다. 06. (1) 일상생활에서 자전거나 도보로 이동하기 (2) ‘등하교 시 짧은 거리는 자전거나 도보로 이동하기’로 수정해야 한다. 07. ① 08. ③ 09. 상대의 의사 를 존중하지 않고, 상대의 말에 대해 공격적으로 반응하여 갈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10. ③ 11. ② 12. ‘일주일마다 소동 담당 학생 정하기’와 ‘컵에 이름표를 붙이고 컵 보관함 설치하기’

**01** 주제에 대하여 서로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근거를 들어 주장을 논리적으로 펼치는 것은 ‘토론’에 관련된 설명이다.

**02** 나에 해당하는 토의 단계는 ‘대안 도출’로, 대안을 도출할 때에는 추상적인 대안보다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 오답 풀이 | ①, ② 공동체가 해결해야 할 문제 상황 및 원인 분석과 문제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은 ‘문제 제시 및 분석’ 단계에 대한 설명이다.

④ 대안들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세운 후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것은 ‘판단 준거 설정 및 대안 선택’ 단계에 해당한다.

⑤ 대안을 공동체 내에서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은 ‘실행 방안 모색 및 문제 해결’ 단계에 해당한다.

- 03** [A]에서 ‘학생 2’의 의견에 대하여 ‘학생 1’이 미리 구매한 종이컵이 또 다른 쓰레기가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를 ‘학생 2’가 수용하여 자신의 의견을 수정하여 유예 기간을 두어 종이컵 사용을 권고하고, 더 이상 종이컵을 구비하지 않는 것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 04** ①에서 ‘학생 2’는 이산화 탄소의 농도 및 배출량과 관련한 자료를 사용하고 있지만 지구 온난화의 변화 과정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 05** ‘사회자’는 ①에서 토의 문제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②에서 토의의 순서에 맞게 진행하고 있다.

평가 기준	점수
①과 ②에 드러난 사회자의 역할 2가지를 모두 서술한 경우	6점
사회자의 역할 2가지 중 하나만 서술한 경우	3점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1점

- 06** ‘학생 1’가 대안을 제시할 때 ‘등교 시’라고 범위를 지정하였으므로 ‘일상생활에서 자전거나 도보로 이동하기’는 의견을 잘못 정리한 것이다. 이를 ‘학생 1’이 제시한 내용에 따라 ‘등교 시 짧은 거리는 자전거나 도보로 이동하기’로 수정해야 한다.

평가 기준	점수
잘못 정리한 내용을 찾고 이를 바르게 고쳤을 경우	5점
잘못 정리한 내용은 찾았으나 이를 바르게 고치지 못한 경우	2점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1점

- 07** ①은 ‘판단 준거 설정 및 대안 선택’ 단계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이 단계에서는 대안을 선택하기 위한 판단 준거를 설정하고(그), 대안들을 평가하여 평가 기준에 적절한 대안을 선택해야 한다(ㄴ).

- 08** ③에서는 ‘우리 학교는 냉난방기 온도가 전체적으로 고정되-

어 있다’는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면서 ‘난방 섭씨 18~20도, 냉방 섭씨 25~28도 유지하기’라는 해당 대안을 선택할 수 없는 이유를 언급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③에서는 ‘등하고 시 짧은 거리는 자전거나 도보로 이동하기’가 학급 규칙으로 설정되기 어려운 이유를 지적하고 있을 뿐, 토의 흐름에 맞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지 않다.

② ④에 다른 학생의 의견에 대해 동의하는 부분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④ ④에서는 앞서 언급된 해결 방법의 문제점인 ‘자율적으로 운영한다면 소동을 일어버리기 쉽’다는 것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학생 1’이 말한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것이다.

⑤ ⑤에서는 앞에서 ‘학생 2’가 제기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안내문을 작성하고 컵에 각자 이름표를 붙이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을 뿐, 추후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예상하고 있지 않다.

- 09** <보기>는 상대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상대의 말에 공격적으로 반응하는 발화에 해당한다. 토의에서 이러한 발화를 할 경우 참여자들 간에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

평가 기준	점수
<보기>와 같은 발화의 문제점을 토대로 수정한 이유를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5점
수정한 이유는 서술했으나 <보기>와 같은 발화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하지 못한 경우	3점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1점

- 10** [B]에서는 공동체의 문제에 대해 학생들이 의견을 내고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며 토의를 진행하고 있다.

- 11** ②에서 ‘사회자’는 토의의 마지막에 토의를 통해 결정된 내용을 종합하여 요약정리하고 있다.

- 12** ‘이동 수업 및 하교 시 소동 점검하기’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일주일마다 소동 담당 학생 정하기’가 제시되었고, ‘개인 다회용 컵 사용하기’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컵에 이름표를 붙이고 컵 보관함 설치하기’가 제시되었다.

평가 기준	점수
구체적인 실천 방안 2가지를 모두 서술한 경우	4점
구체적인 실천 방안 중 1가지만 서술한 경우	2점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1점

## (2) 반대 신문하며 토론하기

문제로 확인하기

본문 230~233쪽

01. ④ 02. ② 03. 반대 신문 04. ② 05. ②

- 01 자신과 상대측의 주장에서 비슷한 부분을 찾아 차이를 줄여가는 의사소통 행위는 토론과 관련 있는 설명이 아니며, 토론에서는 자신의 견해가 상대측보다 타당함을 입증하는 말하기를 수행해야 한다.
- 02 토론 과정에서 드러난 쟁점을 정리하고 자신 측의 주장이 옳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입론보다 반론에 더 가까운 설명이다.
- 03 반대 신문은 토론에서 상대측의 주장과 논거의 적절성을 평하고 상대측 주장의 논리적 오류를 드러내기 위한 과정으로, 토론을 역동적이고 흥미롭게 만들고 논제를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준다.
- 04 반대 신문 단계에서는 상대측 주장에 대한 이유를 묻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와 같이 주장에 대한 이유만을 물으면 상대측의 입장만 확인할 수 있을 뿐, 오류를 검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 05 ‘주장, 이유, 근거 자료의 연관성이 분명한지 확인’하는 것은 타당성, 신뢰성, 공정성 중에 타당성에 해당한다.

- | 오답 풀이 | ① 타당성이 아닌 신뢰성에 대한 설명이다.  
③ 공정성이 아닌 타당성에 대한 설명이다.  
④ 공정성이 아닌 신뢰성에 대한 설명이다.  
⑤ 신뢰성이 아닌 공정성에 대한 설명이다.

### 소단원 적중 문제

본문 244~247쪽

01. ④ 02. ⑤ 03. ⑤ 04. ③ 05. ② 06. 논증의 구성 요소는 주장, 근거, 이유이다. [A]에서 주장은 ‘인공지능 창작물은 저작권으로 보호되어야 한다.’이고 이유는 ‘인공지능은 기존 그림들과 다른 자신만의 특징을 가진 작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근거는 ‘프랑스 연구자들이 개발한 ‘오비어스(Obvious)’라는 인공지능은 학습된 작품을 모방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가니즘(GANism)’이라고 명명되는 새로운 화풍을 창조했다’는 것이다. 07. ④ 08. ② 09.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였으며 상대측 입론에서 벗어난 내용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10. ⑤ 11. ② 12. ④ 13. 반대 신문을 통해 상대측의 입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논리적 오류를 점검할 수 있으며, 반대 신문을 통해 토론자는 토론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다. 14. ④

- 01 반대 신문은 상대측의 주장과 논거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상대측 주장의 논리적 오류를 드러내는 과정으로, 상대측 발언을 토대로 자신의 논증을 보강하기 위한 과정은 아니다.

- 02 이 토론에는 특별한 돌발 상황이 나타나 있지 않고, 이에 대해 사회자가 상황에 대처하여 조정하고 있는 부분도 나타나 있지 않다.

- | 오답 풀이 | ① ‘인공지능 창작물은 저작권 보호를 받아야 한다.’라는 논제를 밝히고 있다.  
② ‘최근 인공지능의 활용이 일상화되면서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는 토론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③ ‘반대 측 제2토론자는 반대 신문을 시작해 주십시오.’라고 하며 토론 참여자에게 발언 순서를 알리고 있다.  
④ ‘찬성 측과 반대 측은 토론 규칙과 예절을 지켜 주시길 부탁드리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라고 하며 토론의 시작을 알리며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

- 03 ‘찬성 1’은 ‘인공지능 창작물은 저작권 보호를 받아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이에 대한 이유로 ‘인공지능의 창작물에는 창작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2022년 미국의 한 미술 대회에서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이라는 작품이 1등을 수상’한 것은 논쟁이 제기된 배경에 해당한다.

- 04 ‘찬성 1’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상담 사례집’을 통해 저작권법이 요구하는 ‘창작성’을 기준 작품과의 구별 가능성으로 정의하면서 인공지능 창작물에 창작성이 있다는 입론에서의 주장을 보강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근거로 새로운 주장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 05 ‘반대 2’는 ‘찬성 1’이 근거로 제시한 인공지능 ‘오비어스’가 만든 ‘가니즘’ 화풍이 결국 기존의 그림들을 모방한 후 기존 화풍을 변주해 창조하는 방식을 사용하였기에 저작자 특성을 지닌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는 근거와 주장의 연결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타당성’을 고려했음을 유추할 수 있다.

- | 오답 풀이 | ①, ④ 근거 자료의 출처가 분명하게 제시되었는지, 믿을 만한 것인지의 여부와 관련된 것은 ‘신뢰성’이다.  
③, ⑤ 주장이 공평한지, 특정 대상에 유리하게 판단하는지의 여부를 고려하는 것은 ‘공정성’과 관련이 있다.

- 06 논증은 논증의 결론이 되는 ‘주장’, 주장과 관련된 객관적 자료나 정보인 ‘근거’, 주장과 근거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여주는 ‘이유’로 구성된다.

평가 기준	점수
논증의 요소를 모두 밝히고, [A]에서 해당 부분을 각각 찾아 서술한 경우	6점
논증의 요소를 모두 밝혔으나, [A]에서 해당 부분을 일부만 찾아 서술한 경우	3점
논증의 요소만 밝힌 경우	1점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1점

07 ‘찬성 1’은 반대 신문 과정에서 ‘반대 1’이 근거로 제시한 저작권법에서의 창작성 요건과 관련하여 상대측의 의견을 묻는 질문을 제시하고 있지만, 정의가 잘못 이루어졌다고 지적하고 있지는 않다.

08 ‘반대 1’은 입론에서 ‘인공지능 예술 프로그램이 작품을 창작하는 과정을 보면, 데이터 학습 기반으로 명령어에 따라 결과물을 산출합니다.’라고 언급하며 작품 창작 과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인공지능은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창작물을 만드는 것’이기에 인간의 사상과 감정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09 질문의 형식에 있어서는 개방형 질문이 아닌 구체적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을 해야 하며, 질문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주장에 대한 이유가 아닌 오류를 검증해야 한다.

평가 기준	점수
질문의 형식 측면과 내용 측면에서 문제점을 모두 서술한 경우	6점
둘 중 하나의 측면에서만 문제점을 서술한 경우	3점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1점

10 [A]에서는 ‘인공지능 창작물을 생성하는 인공지능 기술 자체에 대해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과 관련한 설문 조사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한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자료의 정확도 등을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설문 조사의 출처를 묻는 질문이 가장 적절하다.

11 ‘찬성 2’는 입론에서 ‘인공지능 창작물이라는 이유로 이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저작물을 창작하려는 사람은 없어질 것이고, 이는 인공지능 개발마저도 위축 시킬 수 있다’라고 주장하며 부정적인 상황을 예상하고,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저작권법 보호’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12 ‘찬성 2’는 인공지능 ‘드림라이터’가 저작물로 인정받은 이유

로 ‘어문 저작물의 형식적 조건과 표현 내용의 독창성을 인정받았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저작물로 인정받은 이유를 밝히고 있지 않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13 반대 신문은 상대측의 논증을 분석하고 상대측 주장의 논리적 오류를 드러내기 위해 타당성, 신뢰성, 공정성을 검토한다. 반대 신문은 지정된 시간 안에 질문의 형식으로 상대측에게 직접 질의하고, 이에 대한 상대측의 답변을 듣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평가 기준	점수
반대 신문의 성격 2가지를 모두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6점
둘 중 하나만 서술한 경우	3점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1점

14 ‘찬성 1’은 인공지능 창작물은 새로운 예술적 가치가 있는 대상을 생성하는 것이라는 점과, 인공지능 창작물에 저작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기술 개발자들의 의욕 저하와 기술의 세계적인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들어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저작권법이 지닌 문제를 부각하거나 저작권법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 (3) 서로 만족하는 협상하기

문제로 확인하기

본문 248~253쪽

01. ① 02. ③ 03. ⑤

01 협상의 목적은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설득과 양보, 타협을 통해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해결안을 찾는 것이다.

02 학교 측은 시작 단계에서 ‘인근 학교들도 모두 역사관을 가지고 있고, 졸업생과 재학생의 결속력을 위해서도 역사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 오답 폴이 | ① 협상이 시작하여 조정을 거치는 것은 서로 입장 차이를 줄일 수 있다는 문제 해결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② 학교 측은 ‘몇 년 전부터 졸업생을 중심으로 학교 역사관 설립에 대한 의견’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역사관 설립은 현재 학생들의 요구가 아니다.

- ④ 학생 측의 요구는 미디어 창작실을 새로 설치해 달라는 것이며, 기존에 설치된 미디어 창작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 ⑤ 학생 측은 ‘학교생활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셨나요? 자습실 공간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60퍼센트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라고 말하며 자습실 공간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미디어 창작실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03** 학생 측은 학교 측이 미디어 창작실 신설이 어려운 이유로 제시한 소음 관련 문제를 수용하고, 미디어 창작실 설립에 대한 주장을 수정하고 있다. 자신의 입장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지는 않다.

| **오답 풀이** | ① 학교 측은 학생 측이 자습실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수용하고 충족시켜 주기 위하여 일정 공간을 자습실로 확충해 달라는 제안을 받아들이고 있다.

② 학교 측은 당장 예산이 없지만 예산을 마련하여 학생 측의 의견을 수용하기로 하고 있다.

③ 학교 측은 상대방의 근원적 이해가 학생들의 만족도를 올리는 것임을 파악하여 소음을 유발하는 미디어 창작실을 수용하기 어려움을 밝히고 있다.

④ 학생 측은 자습실을 설치하기로 결정해 준 것에 대하여 자신들이 자습실과 역사관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보상을 제안하고 있다.

### 소단원 적중 문제

본문 261~264쪽

01. ⑤    02. ③    03. ⑤    04. ②    05. ‘상대측의 양보에 대해 보상하기 전략’으로, 학생 측의 발언 중 ‘그러면 학생들끼리 청소 당번을 정해 자습실과 역사관을 정리하고 시설들을 청결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가 이에 해당한다.    06. ③    07. ④    08. 참고를 개조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으며, 방학 중 미디어 창작실 공사까지 할 시간이 없고, 공간 특성상 환기가 안 되어 기기 관리가 어렵기 때문이다.
09. ①    10. ①

**01** 제시된 부분은 협상의 시작 단계로 학교 측과 학생 측이 각각의 입장을 밝히고 있을 뿐, 아직 절충을 시도하고 있지는 않다.

**02** 학교 측은 두 번째 발화에서 ‘자습실 공간도 중요하지만’이라고 이야기하며 자습실 공간도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여 주고 있다.

**03** 이 글에 나타난 협상의 단계는 ‘시작 단계’이다. 시작 단계에서는 협상의 당사자들이 서로의 입장과 요구를 확인하고 갈등의 원인을 분석한다.

### 30 III. 담화와 협력적 문제 해결

| **오답 풀이** | ①, ② 협상의 해결 단계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③, ④ 협상의 조정 단계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04** 학교 측의 말을 듣고 학생 측은 ‘기기 보관이나 소음 문제 등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 측은 학생 측이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통해 의견 조정을 유도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공간의 용도 설정이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공간의 크기가 넉넉하지 않음을 언급하고 있다.

③ 학생 측의 의견 중 자습실은 수용하고자 하지만 미디어 창작실에 대해서는 설치 이유를 물으며 수용하지 않고자 한다.

④ 학생 측은 미디어 창작실이 소음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문제는 수용하지만 운영 규칙에 관련한 내용을 수용하고 있지 않다.

⑤ 학생 측은 학교에 대한 보상으로 자습실 관리를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제안했지만 이로 인해 추가 이익을 얻은 부분은 없다.

**05** 협상에서 상대측의 양보를 통해 자신이 요구한 바를 얻어 냈다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제시하여 서로 만족할 만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데, 이는 ‘상대측의 양보에 대해 보상하기’ 전략에 해당한다.

평가 기준	점수
〈보기〉의 협상 전략을 쓰고, 해당 부분을 찾아 서술한 경우	5점
〈보기〉의 협상 전략만 쓰거나, 해당 부분만 찾은 경우	3점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1점

**06** ⑤에서 학교 측은 ‘회의 및 촬영으로 인한 소음 발생도 문제입니다. 도서관에서는 정숙한 분위기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며 양보를 요구하고 있을 뿐 상호 만족하는 새로운 대안을 탐색하고 있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학생 측의 의견 중, 꼭 필요한 공간이 무엇인지 고려해야 한다는 말을 받아들이고 있다.

② 예산에 관련한 것은 차선에 해당하므로 우선에 해당하는 역사관 설립을 위하여 차선은 양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자습실과 역사관을 둘 다 설치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상호 만족하는 대안을 탐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학생 측은 학교에 대한 의미 고려, 보람 느끼기 등의 유익한 부분이 있으므로 학교 측의 의견을 수용하기로 하였다.

**07** 학생 측이 우선으로 요구하는 자습실 설치는 학교 측에서 요구한 적이 없으므로 차선으로 보기 어렵다.

| 오답 풀이 | ① 학교 측과 학생 측은 다양한 협상 전략을 사용하여 합의 가능한 영역 내에서 제안을 조정하며 협상을 이끌고 있다.  
 ② 학교 측이 얻은 ‘역사관 설치’와 학생 측이 얻은 ‘자습실 설치’는 근원적 이해에 해당한다.  
 ③ 정보실 옆 창고 사용 제안은 학생 측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⑤ 학교 측은 ‘학교에서도 적당한 공간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다고 이야기하며 추후 논의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 08** 학교 측이 ‘창고를 개조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고 정보실 옆 창고는 환기가 쉽지 않아 기기 관리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도서관 구조 변경 공사와 미디어 창작실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학교 일정상 어렵습니다. 방학 중에 공사가 모두 끝나지 않고 개학 후까지 이어지면 학생들 수업에 방해가 될 것입니다.’라고 한 부분에서 의견을 수용하기 어려운 이유를 알 수 있다.

평가 기준	점수
세 가지 이유를 모두 서술한 경우	5점
세 가지 중 일부만 서술한 경우	2점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1점

- 09** 학교 측은 ‘그렇지만 학교 역사관 설립도 중요한 사안이니 공간을 조금씩 양보하면 어떨까요?’라고 하였으므로 ‘역사관 공간의 넓이를 유지하고’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10** 학생 측은 자습실 설치에 대한 보상으로 역사관과 자습실을 직접 관리하기로 하였다.

### 중단원 실전 문제

본문 266~271쪽

01. ④ 02. ③ 03. ③ 04. ⑤ 05. (1) 학급 내에서 실천 가능한지의 여부, 1년 동안 반복적으로 꾸준히 실천 가능한지의 여부, 학생 차원에서 실천 가능한지의 여부 (2) 학급 내에서, 학생 차원으로, 1년 동안 반복적으로 꾸준히 실천 가능하므로 대안으로 적절하다. 06. ② 07. ④ 08. 인공지능 창작물은 저작권법에서 요구하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09. ④ 10. ① 11. ⑤ 12. (1) 도서관 구조 변경 공사로 생긴 추가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학교 측과 학생 측의 의견이 다름. (2) 학교 측은 학교 역사관을 마련하고자 하고, 학생 측은 자습실 공간 확충과 미디어 창작실 신설을 요구함. 13. ③ 14. (1) 학교 역사관을 마련함(또는, 학생들이 직접 자습실과 역사관을 관리하도록 함. 외부 손님에게 학교를 설명하는 과정에 학생들이 참여하게 됨) (2) 역사관 공간을 줄이고, 학교 상징물 등은 학교 입구에 따로 전시하도록 함. 15. ⑤ 16. ②

**01** 이 글과 같은 유형의 담화는 ‘토의’로, 토의는 공동체의 문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의견을 기반으로 해결책을 생각하고, 기준을 통해 최적의 해결 방법을 찾는 담화 유형이다.

| 오답 풀이 | ①, ⑤ 협상과 관련한 설명이다.  
 ②, ③ 토론과 관련한 설명이다

**02** 학생들은 학교 내에서 탄소 배출을 감축시킬 수 있는 실천적 방안들에 대해 토의하고 있다.

**03** ❶에서 ‘학생 4’는 기후에너지환경부라는 공식적 기관에서 발간한 문서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연간 1제곱 미터당 3.5킬로그램의 에너지를 감축할 수 있다’고 이야기 하였을 뿐, 학교가 감축할 수 있는 총에너지 양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아니다.

**04** ❶은 토의에서 ‘대안 도출’ 단계에 해당하고, ❷는 ‘판단 준거 설정 및 대안 선택’ 단계에 해당한다. ⑤는 토의에서 ‘실행 방안 모색 및 문제 해결’ 단계에 해당한다.

**05** ‘학생 3’은 ‘학급 내’ 실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으니 제시된 대안들이 우리 학급 내에서 실천 가능한지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고, ‘학생 1’은 우리 학급은 1년 내내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1년 동안 반복적으로 꾸준하게 실천 가능한 대안인지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하였으며, ‘학생 2’는 학교가 아니라 학생 차원에서 실천할 수 있는 사항이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동 수업 및 하교 시 소동 점검하기’는 이러한 3가지 판단 준거에 모두 적합한 대안이다.

평가 기준	점수
판단 준거 3가지를 모두 찾아 정리하고, <보기>의 대안을 적절하게 평가한 경우	6점
판단 준거 3가지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였거나, <보기>의 대안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경우	3점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1점

**06** ⑦에서는 ‘5분간의 소동 행사로 전력이 그만큼이나 절감되었다니 놀랍습니다.’라고 말하며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언급하였지만, 이후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 오답 풀이 | ① ⑦에서는 ‘등하교 시 가급적 걸어가야겠다고 생각은 하지만’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경험을 언급하고, 해당 규칙이 생기면 ‘예전보다 더 신경 써서 실천’할 것이라는 예상 효과를 언급하고 있다.

③ ‘종이컵을 사용하면 쓰레기가 많아지는 것은 맞습니다.’

라고 상대의 말에 동의하면서도 ‘미리 구매한 종이컵은 또 다른 쓰레기가 되지 않을까요?’라고 말하며 상대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다.

④ ‘자전거를 타거나 걸어서 등하교’하는 대안과 관련하여 ‘짧은 거리의 기준도 애매하고, 몸이 아프거나 늦게 일어났을 때와 같은 변수가 너무 많다고 언급하며 이를 선정할 수 없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⑤ 앞서 제시한 평가 기준인 ‘학교가 아니라 학생 차원에서 실천’과 관련하여 ‘우리 학교는 냉난방기 온도가 전체적으로 고정되어 있으니’라고 언급하며 대안의 주체가 학생이 아님을 확인하고 있다.

- 07** ④의 ‘찬성 1’의 입론을 정리한 내용에서 ‘인공지능이 학습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든 창작물에 저작권을 부여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부분은 논제의 배경에 대한 설명일 뿐, 근거와 주장을 이어 주는 이유로 기능하지 않는다.

- 08** ‘반대 1’은 ‘인공지능 창작물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해 ‘인공지능 창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것이 아니기에 창작성이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라고 하며 그 이유를 밝히고 있다.

평가 기준	점수
④에 제시된 표현을 사용하여 이유를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5점
이유를 서술했으나 ④에 제시된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3점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1점

- 09** ‘찬성 1’의 반대 신문이 개방형 질문인 것은 맞지만, 기능적 창작이 왜 예술이 아닌지, 사상과 감정의 본질이 무엇인지 를 묻는 내용이지 주장과 근거의 연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 않으며, 새로운 주장을 펼치고 있지도 않다.

- 10** [A]에서는 ‘저작자의 특성을 지닌다고 볼 수 없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저작자의 ‘창작성’에 대해 ‘저작권 상담 사례집’을 근거로 대답하며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B]에서도 ‘기능적으로 창작한 것은 왜 예술에 포함되지 않느냐’의 질문에 ‘인공지능이 창작한 예술은 모방이거나, 표절이거나의 논쟁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대답하며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 11** <보기>에 제시된 질문들은 모두 ‘신뢰성’과 관련된 질문이

므로, 설문 조사의 신뢰성과 관련한 질문인 ⑤가 가장 적절하다.

- 12** ④는 협상의 시작 단계로, 도서관 구조 변경 공사로 생긴 추가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학교 측과 학생 측의 의견 차이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있다.

평가 기준	점수
(1)과 (2)를 모두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6점
(1)과 (2) 중 한 가지만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3점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1점

- 13** 학교 측은 학생 측이 주장하는 ‘자습실 설치’와 ‘미닫이식 책장 설치’를 수용하였지만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자습실 관리는 학생 측이 자발적으로 보상을 제공한 것이다.

- 14** 협상을 통해 학교 측은 학교 역사관을 마련하였고, 학생 측은 자습실을 확대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였다. 대신 학교 측에서는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 역사관 공간을 줄이게 되었고, 학교 상징물 등은 학교 입구에 따로 전시하도록 하여 학생 측에게 공간을 양보하였다.

평가 기준	점수
(1)과 (2)를 모두 적절히 서술한 경우	4점
(1)과 (2) 중 하나만 서술한 경우	2점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1점

- 15** 학생 측은 ‘지난번 동아리 발표회나 체험 학습 결과 전시회에서 학생들이 직접’ 영상을 만든다는 점에서 용도를 설명하고, ‘동아리 홍보 영상을 촬영하거나 학습 결과를 발표하기 위한 자료를 만드는 데 유용하다고 언급하고 있지만 학교 측의 설명을 듣고 학교 측의 입장은 수용하고 있으므로 ⑤는 적절하지 않다.

- 16** ④는 상대측의 근원적 이해가 학생들이 원하는 ‘자습실’ 설치임을 근거로 하여, ‘정숙한 분위기’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미디어 창작실 설치의 양보를 요구하는 전략이다.

## 대단원 시험 예상 문제

본문 276~279쪽

01. ④ 02. ④ 03. ① 도둑이 나에게 잡혔다. ② 경찰이 나에게 도둑을 잡게 했다. 04. ④ 05. ① 서술어는 '읽혔다'이고,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었-'과 사동 접미사 '-하-'가 사용되었다. ② 서술어는 '벼려진다'이고, 현대 시제 선어말 어미 '-ㄴ-'과 피동 표현 '-어지다'가 사용되었다. 06. ⑤ 07. ② 08. ⑤ 09. ② 10. 상대 높임법이 주로 사용되었으며, 이는 토론이라는 공적인 말하기에서 청자에게 예의를 갖추거나 공식적으로 대하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이다. 11. ④ 12. ③ 13. [A]에는 조사 '고'를 사용하여 보도 자료의 내용을 간접 인용한 표현이 사용되었으며, 이를 통해 담화의 사실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있다.

01 선어말 어미 '-겠-'은 화자의 추측이나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고 이미 정해진 사실에 대한 확신과 강조는 선어말 어미 '-는-/ㄴ-'으로 표현한다.

02 행위의 주체를 밝히지 않고 현상을 설명하는 것은 피동 표현에 해당하는 설명이고, 접미사 '-우-, -구-, -추-'는 사동 표현에 해당하는 요소이다.

03 주어진 문장을 피동 접미사를 사용한 문장으로 바꾸면 '도둑이 나에게 잡혔다.'이고, 사동 접미사가 아닌 표현을 사용한 문장으로 바꾸면 '경찰이 나에게 도둑을 잡게 했다.'이다.

평가 기준	점수
(1)과 (2)를 모두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4점
(1)과 (2) 중 하나만 서술한 경우	2점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1점

04 다른 단어들은 피동 표현이 사용되었지만 '빛내며'는 '빛나다'의 사동 표현에 해당한다.

- | 오답 폴이 | ① '-되다'는 피동 표현에 해당한다.  
② '물리다'는 '물다'의 피동 표현이다.  
③ '쌓인다'는 '쌓다'에 피동 접미사와 현재 선어말 어미가 결합된 것이다.  
⑤ '풀린다고'는 '풀다'의 어간 '풀-'에 피동 접미사 '-리-', 현재 선어말 어미 '-ㄴ-', 어말 어미 '-다', 인용의 조사 '고'가 결합된 것이다.

- 05 (1) 문장의 서술어는 '읽혔다'로 여기에는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었-'과 사동 접미사 '-하-'가 사용되었다.  
(2) 문장의 서술어는 '벼려진다'로 여기에는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ㄴ-'과 피동 표현으로 '-어지다'가 사용되었다.

평가 기준	점수
(1)과 (2)를 <조건>에 맞게 모두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6점
(1)과 (2) 중 하나만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3점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1점

06 학생 측이 미디어 창작실을 설치하여 얻는 이점을 설명하는 부분은 '동아리 홍보 영상을 촬영하거나 학습 결과를 발표하기 위한 자료를 만들 때에도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로, 미래 시제 관형사형 어미 '-(으)ㄹ'을 사용하고 있다.

| 오답 폴이 | ① 예산과 관련해 학교 측은 '행정실과 상의하여 예산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추측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인 '-겠-'을 사용하고 있으나 정해진 사실임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② 학교 측은 '우선순위를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표현하며 미래 시제 및 추측과 관련한 선어말 어미를 사용하고 있으나, 단절을 의미하는 선어말 어미 '-었었-'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③ 학생 측 의견인 자습실 공간과 관련된 내용으로 '자습실 공간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에는 공감하나'라고 언급하고 있으나, 이는 피동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학생 측이 사용한 시간 부사는 '지난번'이며, 해당 문장의 서술어인 '있었습니다'에 사용된 선어말 어미와 함께 과거 시제를 표현하고 있다.

07 인공지능 예술 프로그램이 작품을 창작하는 과정은 첫 번째 주장에 대한 이유가 아니라, 근거에 해당한다.

08 '사상과 감정 없이 기능적으로 창작한 것은 왜 예술에 포함되지 않나요?'라고 묻는 부분에서 주장에 대한 이유를 물어보고 있으므로 ⑦의 지적이 적절하며, 상대측의 입론에서 '인간의 사상과 감정의 본질'에 대해 다루고 있지 않으므로 ⑨의 지적도 적절하다. 또한 두 가지 질문을 한 번에 하고 있어 ⑩의 지적도 적절하며, '왜'라는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⑪의 지적도 적절하다.

09 '찬성 2'는 ⑧에서 설문 조사의 출처를 확인하고 있으므로 신뢰성에 대해 반대 신문하였고, 이는 '인용된 정보 내용은 정확하며 믿을 만한 것인가?'와 관련이 높다.

- | 오답 폴이 | ①, ③ 타당성과 관련한 질문이다.  
④, ⑤ 공정성과 관련한 질문이다.

10 ❶에서는 상대 높임법이 주로 사용되었다. 토론은 공식적인 말하기 유형에 해당하므로 청자인 상대에게 예의를 갖추거나 공식적으로 대하는 느낌을 주기 위해 상대 높임을 사용한

것이다.

평가 기준	점수
상대 높임법에 대해 서술하고, 이유를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5점
상대 높임법만 서술하고 이유는 서술하지 못한 경우	3점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1점

- 11 ④는 토의에 해당하며, 서로의 근원적 이해를 확인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협상에 해당한다.

- 12 ‘느끼다’는 ‘감각 기관을 통하여 어떤 자극을 깨닫다.’의 의미인 동사이며, 이에 현재 시제의 ‘-ㄴ-’ 선어말 어미가 사용되었다. 따라서 ‘어말 어미’를 사용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살리다’는 ‘살다’에 사동 접미사 ‘-리-’가 결합된 것으로, ‘선생님들의 정확한 대처’라는 외적인 원인에 의한 것임을 보여 주고 있다.  
② 직접 인용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④ ‘실수하겠지’라는 표현을 통해 청자가 실수할 것이라는 내용을 추측하는 과정에서 선어말 어미 ‘-겠-’을 사용하고 있다.  
⑤ ‘절감하다’의 능동사에 ‘-되다’라는 피동 표현을 결합하여 에너지를 절감하는 주체를 밝히지 않고 에너지가 절감된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 13 [A]에서 사용된 표현은 인용 표현으로, 이를 위하여 인용 조사 ‘고’가 사용되었다. 전문적인 지식이나 권위 있는 견해를 인용하여 담화의 사실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주장이나 판단에 대한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평가 기준	점수
〈조건〉에 따라 문법 요소와 표현의 효과를 모두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6점
문법 요소는 제대로 서술했으나 표현의 효과를 서술하지 못한 경우	3점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1점

## N 언어와 우리의 삶

### 1 언어와 삶의 흔적

#### (1) 언어와 삶

##### 문제로 확인하기

본문 286~290쪽

01. ⑤ 02. ④ 03. ③ 04. ⑤ 05. 혈연을 토대로 한 농경 문화 06. ③

01 언어와 사고의 관계, 사회·문화와 언어의 표상 관계는 언어 자체뿐 아니라,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 나타난다.

02 언어의 분절성은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세계를 언어를 사용하여 마디마다 나누어진 것으로 표현하는 특성이다. 음운, 단어, 문장 등 언어 단위마다 일정한 체계를 이루어 배열된다는 특성은 언어의 체계성이다.

03 <보기>는 닦 읊음소리가 언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내용으로, 언어는 내용과 형식이 결합된 일종의 기호로서 그 내용과 형식 사이에 필연적인 관계가 없다는 언어의 자의성과 관련이 있다.

04 언어와 사회, 언어와 문화는 모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서로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 따라서 언어와 사회는 분리 할 수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05 ‘외할머니’, ‘고모’ 등 친족어가 발달한 것을 통해 혈연과 관련된 문화가 발달했음을, ‘파비’, ‘낫’, ‘챙기’, ‘멍에’ 등과 같은 농사 기구와 관련한 어휘가 다양하게 발달한 것을 통해 농경 문화가 발달했음을 알 수 있다.

06 ④은 사회와 문화가 변화함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언어인 새말들이 생겨난 예에 해당한다. 인간의 언어 능력이 발달하는 것과 사고력이 발달하는 것 사이의 연관성은 언어와 사고의 관계와 관련이 있다.

| 오답 풀이 | ① ⑦은 언어와 사고의 관계를 보여 주는 것으로, 언어가 인간의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⑧은 지역이라는 변인에 따라 언어의 양상이 달라지는 예로, 언어와 사회의 관계를 보여 준다.

④ ⑨은 언어와 문화의 관계를 보여 준다.

⑤ ⑩을 통해 언어와 사고, ⑪~⑫을 통해 언어와 사회·문화가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단원 적중 문제**

본문 296~297쪽

01. ③ 02. 언어의 분절성이 나타난다. 03. ① 04. ④  
 05. ① 06. [A]에는 1970년대에 많이 사용한 '고무신', '화장비누' 등의 어휘가 사용되어 있고, [B]에는 2010년대에 많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휴대 전화' 등의 어휘가 사용되어 있다. 이를 통해 언어에는 그 언어 공동체의 사회적 특징이 반영됨을 알 수 있다. 07. ⑦과 ⑧에는 한국 문화가 반영되어 있는데, 외국인들은 이러한 문화적 맥락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 01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는 서로 다른 구체적인 대상 사이의 공통된 속성을 뽑아내어 내용과 형식을 연결함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언어의 추상성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 02 무지개의 색을 나누어 언어로 표현하는 것은, 언어의 분절성과 관련이 있다. 분절성은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세계를 언어를 사용하여 마디마다 나누어진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평가 기준	점수
<보기>에서 설명하는 언어의 특성을 바르게 서술한 경우	3점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1점

- 03 [A]에는 언어의 내용과 형식 사이에 필연적 관계가 없다는 자의성이 드러난다. 강아지 짖는 소리를 언어에 따라 다른 형식으로 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B]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언어가 변화해 온 양상이 나타나므로 언어의 역사성이 드러난다.

- 04 언어의 내용과 형식 사이에는 필연적 관계가 없으므로 '피었다'에 필연적인 관계가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05 동일한 대상을 지칭하는 언어가 달라짐으로써 인간의 사고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언어가 인간의 사고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 06 [A]에는 1970년대에 많이 사용한 '고무신', '화장비누' 등의 어휘가 나타나 있고, [B]에는 2010년대에 많이 사용한 '스마트폰', '휴대 전화' 등의 어휘가 나타나 있다. 이를 통해 언어에는 그 언어 공동체의 사회적 특징이 반영됨을 알 수 있다.

평가 기준	점수
[A]와 [B]에 나타난 언어와 사회의 관계를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5점
언어와 사회의 관계를 바르게 서술했으나, [A], [B]와 관련짓지 못한 경우	3점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1점

- 07 외국인들의 문화권에서는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서 시원하다거나, 가려움이 사라져 기분이 좋다며 시원하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서 시원해하고 가려움이 사라져 기분이 좋다며 시원해하는 모습을 의아하게 느끼는 것이다.

평가 기준	점수
외국인들이 의아한 반응을 보인 이유를 바르게 서술한 경우	3점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1점

**(2) 시대에 따른 국어의 변화****문제로 확인하기**

본문 298~302쪽

01. ④ 02. 향찰 03. ① 04. ② 05. ⑤ 06. ④  
 07. '-ㄴ다' 08. ⑤ 09. ③

- 01 고대 국어에는 된소리는 아직 발달하지 않았고, 예사소리와 거센소리가 존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 오답 폴이 | ① 고대 국어 시기에는 한자어 사용이 확대되었다.

② 고대 국어 시기에는 우리말을 표기할 수 있는 고유의 문자가 존재하지 않았다.

③ 방점을 통해 소리의 높낮이를 표기한 것은 중세 국어의 특징이다.

⑤ 'ஃ', 'ஃ' 등의 글자가 사용된 것은 중세 국어의 특징이다.

- 02 향가를 표기할 때 사용하는 차자 표기법은 향찰이다. <보기>에서는 향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03 '永同郡'과 '吉同郡'을 읽는 방법은 동일하였다. '永同郡'과 '吉同郡' 모두 '길동군'에 가깝게 발음하였다.

- 04 중세 국어 시기에는 높임법을 표현하는 문법 요소가 존재하였으며 주체 높임법, 객체 높임법, 상대 높임법을 표현하는 선어말 어미에 의해 실현되었다.

- 05 '여름'은 어근 '열-'에 명사 파생 접미사 '-음'이 결합한 형태이다. 따라서 명사형 어미 '-음'이 사용되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06 ‘내·히’는 ‘녕+이’이며, 자음으로 끝난 체언 뒤에 주격 조사 ‘이’가 사용되었다.

07 중세 국어에서 주어가 2인칭일 때는 의문형 종결 어미 ‘-ㄴ다’를 사용한다.

08 근대 국어 시기에는 ‘ㄱ, ㄴ, ㄹ, ㅁ, ㅂ, ㅅ, ㅇ’을 받침으로 표기하였다.

09 ④의 ‘사률’은 양성 모음으로 이루어진 단어이고, ‘의’는 음성 모음으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따라서 ‘사률의’는 모음 조화가 잘 지켜진 사례가 아니다.

### 소단원 적중 문제

본문 311~314쪽

01. ③ 02. 우리말을 표기할 고유의 문자가 없어서 한자를 이용하여 우리말을 적는 차자 표기를 사용하였다. 03. ⑤ 04. ⑦은 한자의 음을 빌려 표기한 것이고, ⑨은 한자의 뜻을 빌려 표기한 것이다. 05. ④ 06. ④ 07. ② 08. 양순음 뒤에 오는 평순 모음 ‘-’가 ‘-’로 바뀌는 원순 모음화가 일어난다. 09. ‘고조란’의 ‘곳’은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으란’이 와서 이어 적기 되었고, ‘곳’은 8종성법으로 인해 ‘ㅈ’이 ‘ㅅ’으로 교체되었다. 10. ③ 11. ⑤ 12. ② 13. ④ 14. ③ 15. ⑤ 16. ④ 17. 중세 국어에서는 명사형 어미의 형태가 ‘-음/-움’이었지만 근대 국어에서는 ‘-기’와 ‘-ㅁ’이 사용되었다.

01 [A]의 현대어 풀이를 보면 ‘지금 이를 그대로 쓰고 있다.’라고 하였으므로 ‘永同郡’과 ‘吉同郡’의 표기는 접차 ‘永同郡’으로 통일되었음을 알 수 있다.

02 고대 국어 시기에는 우리말을 표기할 고유의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한자를 이용하여 우리말을 적었으며, 이를 차자 표기라고 한다.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적은 고유 명사 표기, 이두, 구결, 향찰 등이 이러한 차자 표기에 해당한다.

평가 기준	점수
고대 국어 시기의 표기 방법을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3점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1점

03 ‘行’은 ‘노니다’의 ‘니’에 해당하는 표기이다. 이는 실질 형태 소이므로 형식 형태소를 표기하기 위해 한자의 뜻을 빌렸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04 ⑦은 한자의 음을 빌려 표기한 것이고, ⑨은 한자의 뜻을 빌려 표기한 것이다.

평가 기준	점수
⑦과 ⑨에서 한자를 빌려 사용한 방식을 모두 바르게 서술한 경우	4점
⑦과 ⑨ 중 한자를 빌려 사용한 방식을 한 가지만 바르게 서술한 경우	2점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1점

05 ‘අ’, ‘ଓ’은 둘 다 초성 자리와 종성 자리에 쓰일 수 있는 문자였다. 따라서 종성 자리에는 ‘ଓ’, 초성 자리에는 ‘අ’을 표기하였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06 ‘부텨’는 모음 ‘ㅓ’로 끝나는 단어이고 여기에 주격 조사가 ‘ㅣ’로 실현되어 붙은 것이다. 따라서 반모음 ‘ㅓ [j]’로 끝나는 단이라는 진술과 주격 조사가 ‘ㅇ(영형태)’로 실현되었다는 진술은 모두 적절하지 않다.

07 ⑤의 ‘-슬-’은 생략된 목적어 자리에 놓이는 ‘부텨’를 높인 것이다.

08 ‘マ름’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였는데, ②에서 ③으로 변화할 때 양순음 ‘ㅁ’ 뒤에 오는 평순 모음 ‘-’가 ‘-’로 변화하는 원순 모음화가 나타나 ‘マ를’이 ‘マ물’로 바뀌었다.

평가 기준	점수
음운 현상을 <조건>에 맞게 바르게 서술한 경우	5점
음운 현상을 바르게 서술했으나, <조건>을 지키지 못한 경우	3점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1점

09 ‘고조란’은 ‘곶+으란’으로, ‘곶’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으란’이 와서 이어 적기된 것이다. ‘곶’은 8종성법이 적용되어 받침 ‘ㅈ’이 ‘ㅅ’으로 교체된 것이다.

평가 기준	점수
‘고조란’과 ‘곶’의 표기가 다른 이유를 모두 바르게 서술한 경우	6점
‘고조란’과 ‘곶’의 표기 원리 중 하나만 바르게 서술한 경우	3점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1점

10 ④의 ‘-시-’는 ‘俱궁夷ingga’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이 문장의 주어의 자리에 놓인 ‘善·ண慧·嘲’을 높이고 있다.

11 ‘父·부母:모를’의 ‘부모’는 양성 모음으로 끝난 단어이고, ‘를’은 양성 모음으로 이루어진 조사이다. 따라서 양성 모음끼

리 만난 사례이므로 모음 조화가 조금씩 무너지고 있는 근거로는 적절하지 않다.

- 12 ⑧의 ‘나라해’는 ‘ㅎ’ 종성 체언인 ‘나랗’에 부사격 조사 ‘애’가 결합한 형태이다. ⑨의 ‘짜핥’은 ‘ㅎ’ 종성 체언인 ‘꽝’에 목적격 조사 ‘을’이 결합한 형태이다. ⑩의 ‘술훗’은 ‘ㅎ’ 종성 체언인 ‘懦’에 보조사 ‘온’이 결합한 형태이다.
- 13 ‘드물미라’는 ‘드濡+이라’를 이어 적기한 형태이다. 따라서 이를 통해 끊어 적기 방식이 점차 확대되고 있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14 ‘같티’는 받침에 놓인 ‘ㅌ’을 거듭 표기한 형태를 보여 주므로 거듭 적기 방식이 적용된 사례에 해당한다. 나머지는 끊어 적기 방식을 적용한 표기이다.
- 15 ‘ㅅ’은 된소리를 표시하는 기호일 뿐 어두에서 발음되는 자음이 아니었으므로, 어두에서 발음되던 ‘ㅅ’이 탈락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16 한글을 사용하는 것은 ‘양하귀천’이 다 보게 하기 위함이라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한글을 알지 못하는 세력을 배척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17 중세 국어에서는 명사형 어미의 형태가 ‘-음/-음’이었지만 근대 국어에서는 ⑧와 같이 ‘-기’가 사용되거나, ⑨와 같이 ‘-ㅁ’이 사용되었다.

평가 기준	점수
중세 국어의 명사형 어미의 형태와 비교하여 근대 국어의 명사형 어미 두 가지를 서술한 경우	4점
근대 국어의 명사형 어미 두 가지를 서술했으나, 중세 국어의 명사형 어미에 대해서는 서술하지 못한 경우	2점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1점

### 중단원 실전 문제

본문 316~318쪽

01. ① 02. ⑤ 03. ③ 04. ③ 05. ④ 06. ‘부쁨매’는 체언 ‘부쁨’과 부사격 조사 ‘애’가 결합한 형태이고, ‘사름미’는 체언 ‘사름’에 관형격 조사 ‘의’가 결합한 형태이다. 07. ③ 08. ⑥ 09. ④ 10. 7종성법이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01 <보기>에는 언어의 내용과 형식이 언어마다 상이하다는 특성이 드러난다. 이는 언어의 내용과 형식 사이에는 필연적인 관계가 없다는 언어의 자의성을 드러낸다.

02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하십시오체’를 사용하고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 ‘해라체’를 사용하는 것은 화자의 연령에 따른 언어 사용의 차이라기보다는 청자의 연령에 따른 언어 사용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사회적 요인에 따른 언어 변이라고 보기 어렵다.

03 <보기>에는 ‘반려’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사람의 인식에도 영향을 받는 상황이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사용하는 언어가 인간의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 주는 사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04 ⑨와 ⑩에서 받침 ‘ㄷ’이 사용된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받침에는 ‘ㄱ, ㄴ, ㄹ, ㅁ, ㅂ, ㅅ, ㅇ’의 일곱 자만 사용되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05 ‘듣는다’의 ‘-ㄴ다’는 평서형 종결 어미가 아니라 의문형 종결 어미이다. 따라서 현대 국어와 동일한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06 ‘부쁨매’는 체언 ‘부쁨’과 부사격 조사 ‘애’가 결합한 형태이다. ‘사름미’는 체언 ‘사름’에 관형격 조사 ‘의’가 결합한 형태이다.

평가 기준	점수
①과 ⑨에 사용된 조사를 <조건>에 맞게 모두 바르게 서술한 경우	6점
①과 ⑨에 사용된 조사 중 한 가지를 <조건>에 맞게 바르게 서술한 경우	3점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1점

07 ⑩의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가 높이고 있는 것은 문장의 주어 자리에 놓이는 ‘善:션 慧:睎’이다. 따라서 ‘俱:궁夷:잉’를 높이기 위해서라는 진술은 잘못된 것이다.

08 ⑨의 ‘의’는 관형격 조사이므로 부사격 조사라는 진술은 잘못된 것이다.

09 ⑩의 ‘올타’는 ‘옳다’를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것이다. 따라서 단어의 형태가 바뀌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10 근대 국어 시기에는 받침으로 ‘ㄱ, ㄴ, ㄹ, ㅁ, ㅂ, ㅅ, ㅇ’의

일곱 개 자음자만을 적었다. 따라서 근대 국어의 받침에는 ‘ㅊ’을 사용하지 않아, ‘ㅊ’ 대신 ‘ㅅ’으로 표기한 것이다.

평가 기준	점수
근대 국어의 특징인 7종성법과 관련지어 이유를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3점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1점

## 2 언어의 다양한 모습

### 언어의 다양성과 공공성

#### 문제로 확인하기

본문 322~324쪽

01. ⑤ 02. ③ 03. 언어 공동체 04. ④ 05. 공정성

- 01 이 글에 따르면 하나의 언어 공동체 내에서도 언어 사용 양상은 다양하게 나타나며, 담화 관습은 세대, 지역, 분야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02 담화 관습에는 언어 공동체의 사고방식, 선호하는 표현 방식, 자주 사용하는 어휘 등이 포함되며, 이는 사회·문화적 변화에 따라 함께 변하는 특징이 있다.
- 03 언어 공동체는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집단으로, 하나의 언어 공동체 내에서도 언어 사용 양상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 04 최근에는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누구나 쉽게 인터넷에 글을 올리거나 방송을 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공인을 포함하여 누구나 공적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 05 공공언어가 갖추어야 할 요건에는 정확성, 적절성, 공정성이 있으며, ‘고압적·권위적·차별적 표현을 삼갔는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였는가?’는 공정성을 확인하는 질문이다.

#### 소단원 적중 문제

본문 333~334쪽

01. ④ 02. 예 ‘단디 해라이!’에서 알 수 있듯이 언어는 지역에 따라 그 사용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03. ③ 04. ⑤ 05. ④ 06. 예 매체의 발달로 인해 개인이 만든 담화도 공공언어로서의 성격을 띠기 때문이다. 07. ②

01 담화 관습은 서로 다른 언어권뿐 아니라 동일한 언어권 내에서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세대, 지역, 분야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다양한 양상의 담화 관습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오답 폴이 | ① 담화 관습은 언어 공동체에서 오랜 기간 형성해 온 소통 방식이기 때문에 모든 언어 공동체는 나름의 담화 관습을 갖고 있다.

② 언어 공동체는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집단을 가리키는 말이다.

③ 같은 언어를 사용하더라도 언어 사용 양상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⑤ 담화 관습은 서로 다른 언어권뿐만 아니라 동일한 언어권 내에서도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다양한 담화 관습을 지녀야만 언어 공동체로 분류하는 것은 아니다.

02 [A]의 사례는 각각 지역, 세대, 분야 등의 요인에 따라 언어 사용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예이다. 조건에 따라 사례와 요인을 적절하게 연결하여 제시한다.

평가 기준	점수
사례와 그에 해당하는 언어 사용 양상의 요인을 <조건>의 형식에 따라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5점
사례와 그에 해당하는 언어 사용 양상의 요인을 서술했으나 <조건>의 형식에 지키지 못한 경우	2점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1점

03 자신의 담화 관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기보다는 서로의 담화 관습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04 할아버지와 지수는 세대의 차이로 인해 서로 다른 담화 관습을 보이고 있다.

| 오답 폴이 | ① 할아버지와 지수는 같은 언어(우리말)를 사용하기 때문에 같은 언어 공동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② 할아버지와 지수는 서로 사용하는 어휘를 잘 이해하지 못하여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③ 할아버지가 사용한 ‘섣달그믐날’이라는 말을 지수는 이해하지 못했고, 지수가 사용한 ‘팩폭’이라는 말을 할아버지는 이해하지 못했다.

④ 할아버지와 지수는 서로 다른 담화 관습을 갖고 있지만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05 진행자의 말 중 ‘이번 언어 사용의 문제점은 텔레비전 공공 프로그램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더 심각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는, 공공 프로그램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므로 언어 사용의 문제점이 더 심각하게 느껴진다는 의미이다. 공공 프로그램은 공공언어로서 갖추어야 할 요건을 지

켜야 한다는 내용만 나타나 있을 뿐, 공공 프로그램에서 언어 사용의 문제점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 06** 가에서 오늘날 우리는 다양한 매체가 발달하는 사회에 살고 있으며 개인이 만든 담화가 불특정 다수에게 쉽게 전달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나에서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누구나 쉽게 인터넷에 글을 올릴 수 있고 개인 인터넷 방송도 활발하게 제작되고 있다고 하였다. 이로 보아 개인이 만든 담화도 다수를 대상으로 하므로 공공 프로그램과 같이 공적 책임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평가 기준	점수
①의 이유를 가와 나의 내용과 연관 지어 구체적으로 서술한 경우	5점
①의 이유를 서술하였으나 구체적이지 못한 경우	3점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1점

- 07** 방송에서는 ‘서울로 올라오는’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서울 중심적 문화가 배어 있는 지역 차별적 표현에 해당한다.

### 중단원 실전 문제

본문 336~337쪽

01. ② 02. ⑤ 03. 예 다양한 유형의 가정이 사용하는 서로 다른 담화 관습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회적인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집단 간 갈등 상황이 쉽게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04. ⑥ 05. ② 06. 예 공공언어로서 품격을 지키지 않았고, 고압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 01** 언어 공동체에 속해 있는 개인이라고 하더라도 다양한 담화 관습을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한 지역에 사는 고등학생은 그 지역의 담화 관습, 또래 집단의 담화 관습 등을 모두 갖는다.

- 02** 나는 지역의 방언이 사용되어 토속적인 정감을 전달하는 문학 작품이다.

| 오답 폴이 | ① 한글로 쓰여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는 다른 언어 공동체의 특성이라고 할 수 없다.  
② 지역의 방언을 사용했다고 해서 다양한 담화 관습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 ③ 세대에 따른 담화 관습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④ 표준어로 쓰인 작품이 문학으로서 가치가 더 높다고 말할 수는 없다.

- 03** 다문화 가정이나 북한 이탈 주민 가정 등에서 사용하는 담화 관습에 대해 이해하지 않고 배타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평가 기준	점수
담화 관습을 이해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회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한 경우	5점
담화 관습을 이해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회 문제에 대해 서술하였지만 구체적이지 못한 경우	3점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1점

- 04** 공공언어는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해야 한다. 전문적인 지식을 담은 고상한 표현을 사용할 경우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소외되는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공공언어의 요건으로 적절하지 않다.

- | 오답 폴이 | ① 공공언어의 정확성에 대한 질문이다.  
② 공공언어의 적절성에 대한 질문이다.  
③ 공공언어의 공정성에 대한 질문이다.  
④ 공공언어의 적절성에 대한 질문이다.

- 05** ⑦은 지나치게 어려운 한자어를 사용하였고, 명사 나열 및 종결에 의한 개조식 서술이어서 고압적, 권위적인 느낌을 준다.

- | 오답 폴이 | ① ⑦은 지나치게 이해하기 어려운 외래어를 사용하고 있다.  
③, ④ ⑦은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느낌을 주며, ‘폰질’이라는 속된 말을 사용하여 공공언어로서 적절하지 못하다.  
⑤ ⑦은 지나치게 어려운 한자어를 사용하였고, 복잡한 표현을 사용하여 이해하기 쉽지 않다.

- 06** <보기>에서는 ‘제 방송이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 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하며 고압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뒷담’과 같은 표준어가 아닌 어휘를 사용하고 있다.

평가 기준	점수
공공언어로서 적절하지 못한 이유를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5점
공공언어로서 적절하지 못한 이유를 서술하였지만 구체적이지 못한 경우	3점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1점

01. ① 02. ③ 03. ‘외할머니’, ‘고모’와 같은 어휘가 발달한 것을 통해 혈연을 바탕으로 한 친족 문화가 발달했음을 알 수 있고, ‘파비’, ‘낫’, ‘챙기’, ‘멍에’ 등의 어휘를 통해 농경 문화가 발달했음을 알 수 있다.
04. ④ 05. ③ 06. ③ 07. ⑤ 08. ① ‘-으샤-’ ② ‘-습-’
- (3) ⑧에서는 문장의 주어 자리에 놓인 ‘부터’를 높이기 위해 주체 높임법을 사용하였고, ⑥에서는 생략된 목적어 자리에 놓이는 ‘부터’를 높이기 위해 객체 높임법을 사용한 것이다. 09. ① 10. ⑤ 11. ⑤
12. ① 13. (1)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2) 지방의 위치와 상관없이 서울로 ‘올라오는’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서울이 지방보다 높은 곳에 있다는 인식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14. ⑧: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외국어를 사용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⑨: 품격이 떨어지는 ‘꼰질’과 같은 용어를 사용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 01 ‘혹등고래, 링크고래, 참고래’를 ‘고래’라는 용어로 명명하는 것은 언어의 추상성 때문이지만, 이와 반대로 ‘고래’를 더 구체적인 대상으로 분류하는 것은 언어의 추상성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다.
- 02 ⑦은 ‘음식이 차고 산뜻하거나, 뜨거우면서 속을 후련하게 하는 점이 있다.’의 의미로 ‘덥거나 춥지 아니하고 알맞게 서늘하다.’의 뜻이 확장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 03 원쪽 대화에서 ‘외할머니’, ‘고모’와 같은 친족어를 통해 혈연을 바탕으로 한 친족 문화가 발달했음을 알 수 있고, 오른쪽 대화에서 ‘파비’, ‘낫’, ‘챙기’, ‘멍에’ 등 농사 기구와 관련된 어휘를 통해 농경 문화가 발달했음을 알 수 있다.

평가 기준	점수
구체적 어휘를 바탕으로 두 가지 문화적 특징을 모두 서술한 경우	4점
두 가지 문화적 특징 중 하나만 바르게 서술한 경우	2점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1점

- 04 ‘알고리즘’과 ‘딥 러닝’ 같은 표현은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 언어의 변이라고 보기 어렵다. 학업이나 전문 영역에 따른 언어 변이에 해당한다.
- 05 ④는 중세 국어 시기의 자료로, 이 시기에 주격 조사 ‘가’는 사용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시기에 주격 조사 ‘이’와 ‘가’가 함께 사용되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06 ‘永同郡’은 한자의 뜻을 빌린 표기이고, ‘吉同郡’은 한자의 음을 빌린 표기이다. 당시 이 둘은 서로 같은 소리로 읽었다.
- 07 ‘듣는다’의 종결 어미는 ‘-ㄴ다’이다. 따라서 평서형 종결 어

미 ‘-다’가 사용되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08 ⑧에 실현된 선어말 어미는 ‘-으샤-’이고, ⑨에 실현된 선어말 어미는 ‘-습-’이다. ⑧에서는 주체 높임법을 사용하였고, ⑨에서는 객체 높임법을 사용하였다.

평가 기준	점수
두 가지 선어말 어미와 높임 대상, 높임법을 모두 바르게 서술한 경우	6점
두 가지 선어말 어미와 높임 대상, 높임법 중 한 가지를 바르게 서술한 경우	3점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1점

- 09 근대 국어 시기에는 어두 자음군이 더 이상 쓰이지 않았다. 따라서 어두 자음군이 존재하였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10 이 글의 맥락을 고려하면 특정인을 비방하기 위한 말이라고 보기 어렵우므로 공공언어가 갖추어야 할 적절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11 [A]와 [B]에는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결여된 언어 사용 양상이 나타난다. 따라서 [A]와 [B]에서의 언어 사용을 사고력과 연계하여 분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12 조선 시대에 사회 계급에 따라 사용하는 어휘의 종류가 달랐던 것은 언어와 사고의 관계를 보여 주는 사례가 아니라 언어와 사회의 관계를 보여 주는 사례에 해당한다.

- 13 지방의 위치와 상관없이 서울로 ‘올라오는’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서울이 지방보다 높은 곳에 있다는 인식을 드러내기 때문에 차별적 표현에 해당한다.

평가 기준	점수
④에 해당하는 표현과 이유를 모두 바르게 서술한 경우	5점
④에 해당하는 표현만 바르게 서술한 경우	2점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1점

- 14 ④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외국어를 사용한다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⑨는 품격이 떨어지는 ‘꼰질’과 같은 용어를 사용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평가 기준	점수
④와 ⑨의 문제점을 모두 바르게 서술한 경우	4점
④와 ⑨의 문제점 중 한 가지만 바르게 서술한 경우	2점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1점